



五倫行實圖

韓版

五

9
1439
5



門 9
1335
5



五倫行實圖卷第四目錄

兄弟

汲壽同死

卜式分畜

王琳救弟

許武自穢

鄭均諫兄

趙孝就烹

繆彤自搗

李克逐婦

姜肱同被

王覽爭醜

庾袞守病

王密易弟

蔡廓容事

棘薩爭死

楊氏義讓

達之贖弟

五倫行實圖 卷四 目錄

弟十卷三年

光進反籍

德珪死獄

杜衍待兄

張存布錦

彥霄析籍

道卿引頸

郭全分財

思達義感

附宗族

君良斥妻

公藝書忍

陳氏羣食

仲淹義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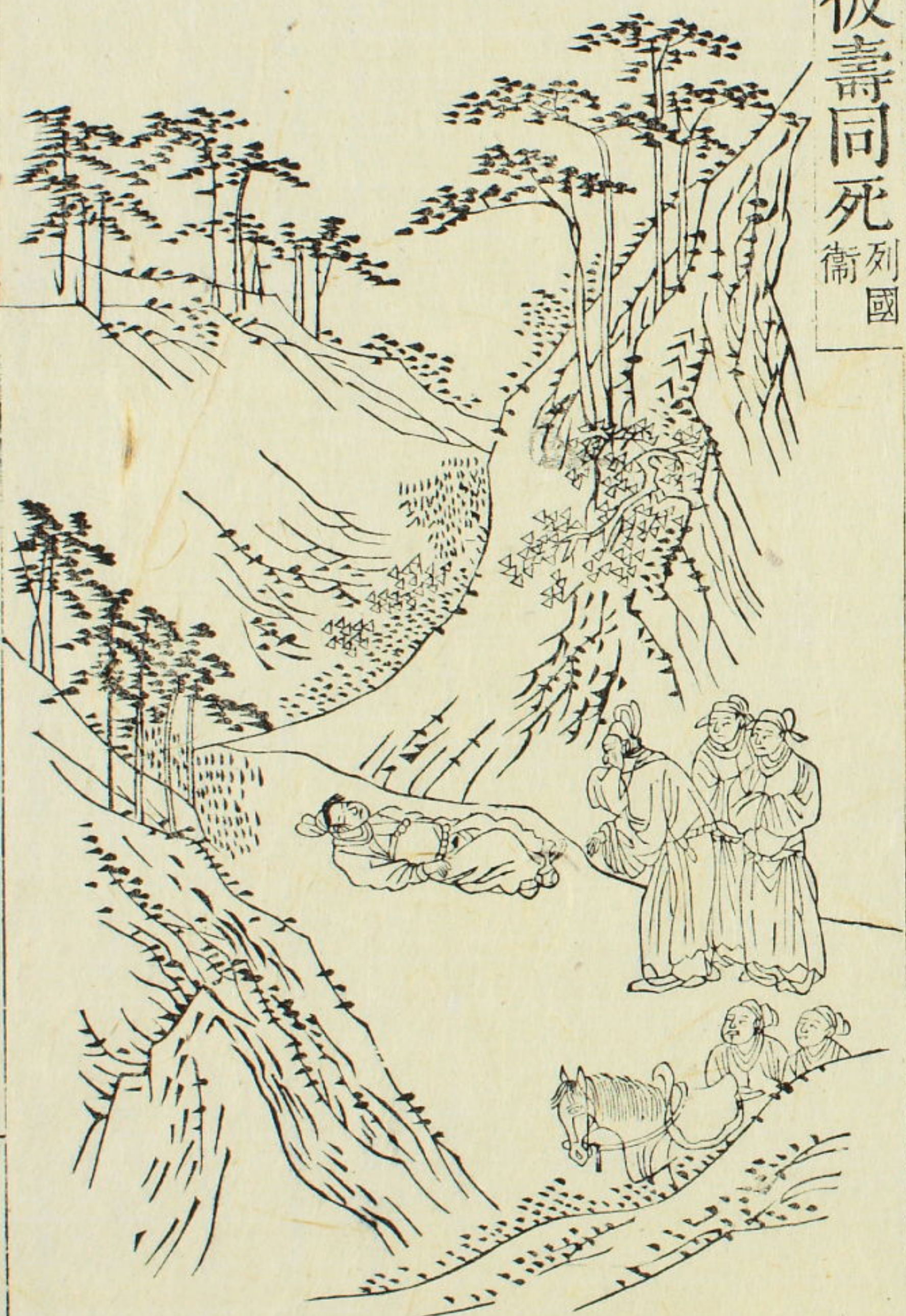
陸氏義居

文嗣十世

張閏同爨

伋壽同死

列國衛



衛公子壽者宣公之子太子伋之異母弟公子朔之同母兄也其母與朔謀欲殺伋共讒於公公令伋之齊使賊先待於隘而殺之壽知之以告伋使去之伋不可曰棄父之命惡用子矣有無父之國則可也及行壽飲以酒載其旌而先往賊殺之伋至曰君命殺我壽有何罪賊又殺之國人傷之作二子乘舟之詩

詩泛泛河舟同濟日迢迢齊路竊旌時自逢囂傲

鴿原急一去那堪見兩屍 人倫遭變力難禁爭死悲懷兩不任爲寫新編垂萬代凜然天下弟兄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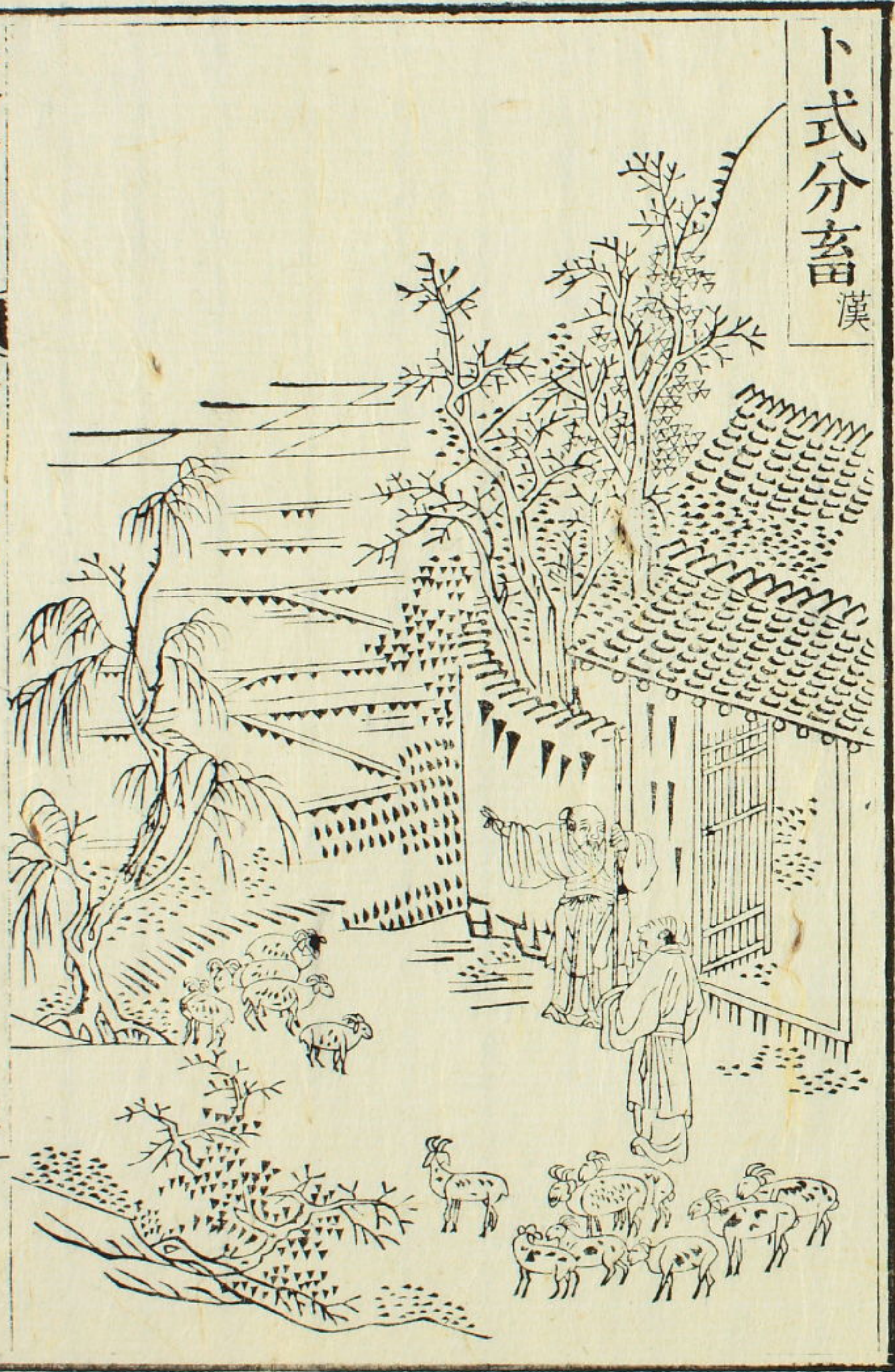
위나라공조슈는선공의아들이오태조금의다
 른어미게나흔아이오공조삭의흔어미의게나
 흔형이라슈의어미삭으로더브리싸하여금을
 죽이려하여흔가지로선공의게참소하니공이
 금으로하여금제나라히스신가라하고도적을
 즈레보내여죽이라하니쉬알고금의게고하여
 드라나라흔대금이듯디아니하여곧오디아비
 명을브리면엇디조식이라하리오하고장춧힘
 흘서쉬술로금을먹여취게하고금의괴를만
 이아사몬져가니도적이괴를보고금인가하여

죽이거늘금이니르러골오덕님군이날을죽이
 라하시니쉬무슴죄이시리오호대도적이또죽
 이니나라사름이슬허허여이저승쥬
 라호느글을지으니라

두사름이비드
 고가단말이라

卜式分畜

漢



卜式河南人以田畜爲事有少弟弟壯式脫身出獨
取畜羊百餘口田宅財物盡與弟式入山牧十餘季
致千餘頭買田宅而弟盡破其產式輒復分與之

詩世業遺財付友于脫身甘伴牧豬奴買宅何心
吾獨富千頭分向弟家輸 錐刀爭利世紛紛誰
念天親一體分他日佐時輸粟盡此心孝悌便移
君

복식은한나라하남사람이니밭갈고증싱치기
로일삼더니저근아이이서이의당성하니식이
전택과지름을다아이를주고다만기르던양백

여구를가지고홀로산등에드러가십여년을양
을쳐양이성하니여천여두에니르니전택을사두
엇더니그아이가산을다패하거늘식이든다
시느화주니라

王琳救弟 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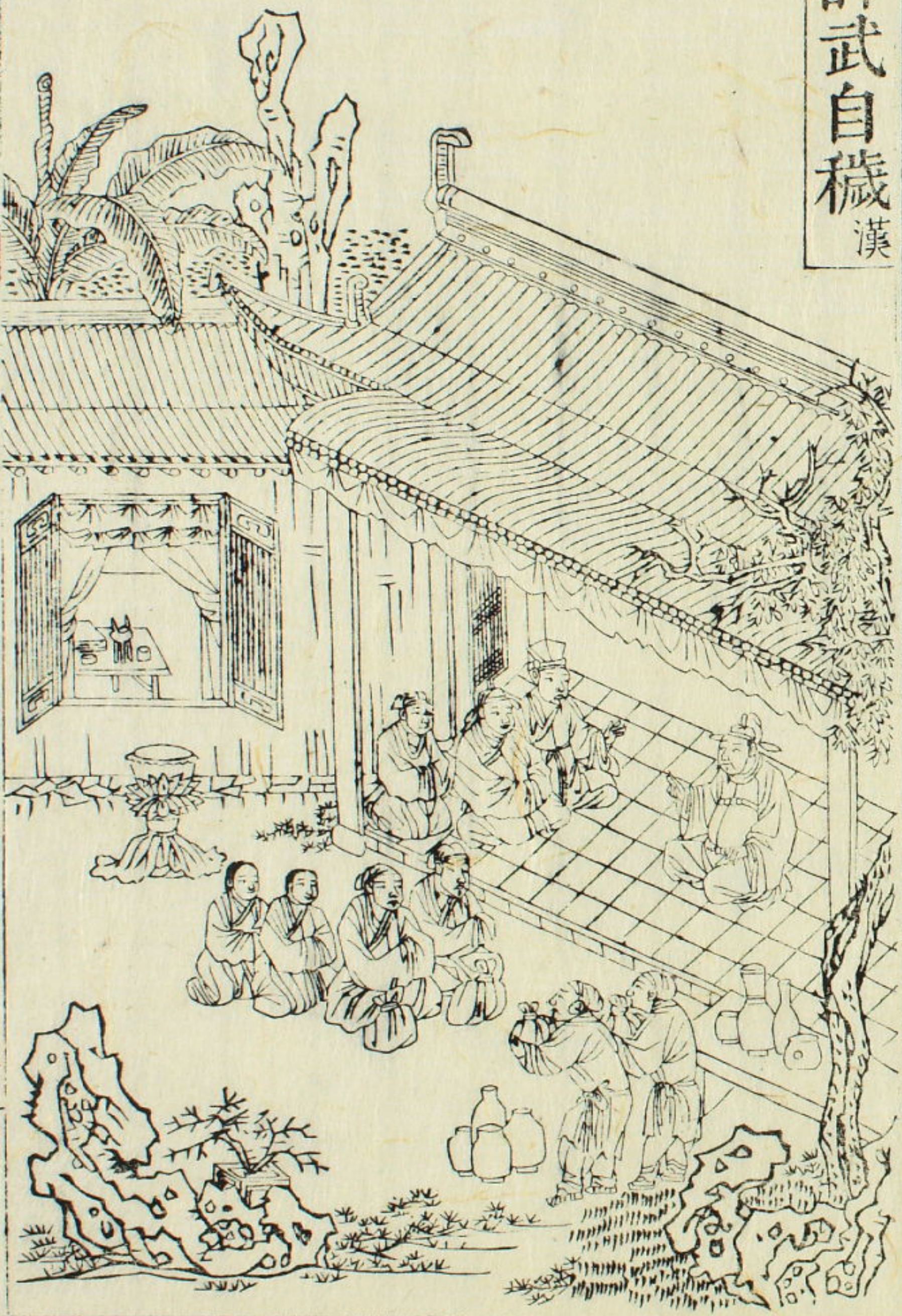
王琳汝南人年十餘歲喪父母因遭大亂百姓奔逃
 惟琳兄弟獨守塚廬號泣不絕弟季出遇赤眉為賊
 所捕琳自縛詣賊請先季死賊矜而放遣之

詩四方多難劇紛如兄弟攀號獨守廬為季投身
 先乞死豺狼安得不矜且 弟兄相愛即天彝急
 難誰知有此兒要識世人無不感請看兇醜遣歸
 時

왕님은한나라여남사람이니나히십여세에부
 모를여희고난리물만나빅성이다드라나되오
 직님의형데는부모분묘를직희여울기를곳치

디아니하러 니아이나가다가도적의게잡히니
님이스스로결박하여도적의게나아가몬져죽
어디라청호대도적이불상이너겨다노화보내
니라

許武自穢漢



許武陽羨人建武中會稽太守第五倫舉爲孝廉武以二弟晏普未顯欲令成名乃謂之曰禮有分異之義家有別居之道於是共割財產以爲三分武自取肥田廣宅奴婢強者二弟所得並皆劣少鄉人皆鄙武貪而稱弟能讓由是晏等俱得選舉武乃會宗族泣曰吾爲兄不肖盜竊聲位二弟年長未霑榮祿所以求得分財自取大譏今理產所增三倍於前悉推與二弟一無所畱於是郡中翕然稱之

詩廉孝從前舉豈誣臨財甘作一貪夫心期二弟名成後三倍貲財盡付渠 弟顯自從兄穢日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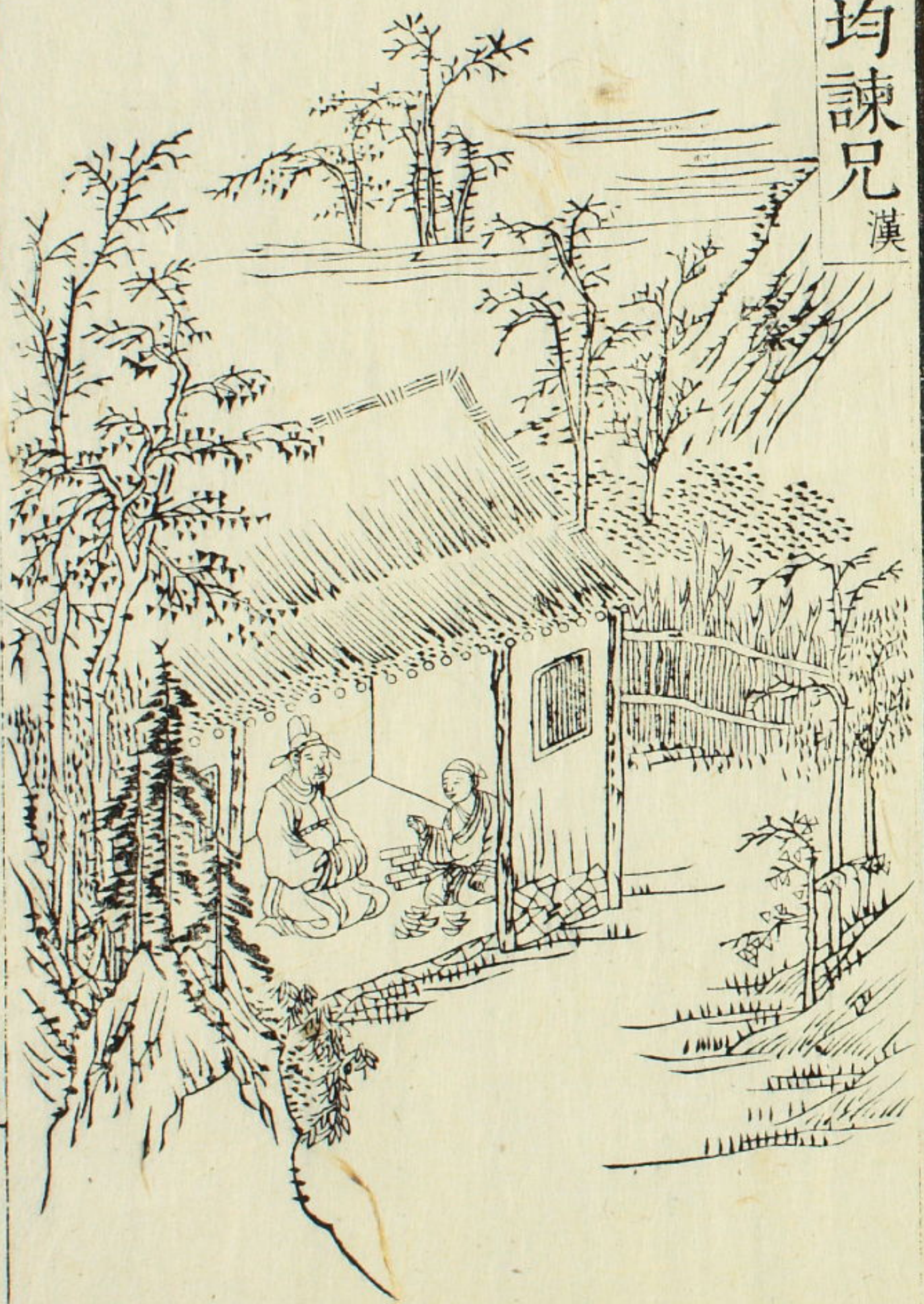
貪還釋弟榮時尋常友愛還誇俗隱德無嫌世所

譏

허무는 한 나라 양연 사람이니 회계태슈테오름
이천거하여 벼솔하이니 뭐그두아이 현달티 못
하므로 일흠을 내려하여 이에 아으드러닐오디
분지하여 각각 살기논응당호도리라 하고 가산
을삼분에는 화무는도흔밭과너른집과건장호
종을큰히여가지고두아으논못밭거슬주니향
등사람이다무의탐호물터러이너지고두아의
능히스양호를일크르니일로말미암아두아이

다벼슬을어드니뫼종족을모호고올며곧오디
 내형이더여블초흔디라일홈과벼슬을외람히
 어더시되두아은자라매홀로영화를보디못
 하니내그러므로분지함을구하여스스로사디
 름을취하엿더니이제내가산이느러전의셔
 삼비나더하엿노라하고다그아올노화주고하
 나로가지디아니하니일음사람이비로소그어
 띠를일르러라

鄭均諫兄 漢



鄭均任城人兄爲縣吏頗受禮遺均數諫止不聽則脫身爲傭歲餘得錢帛歸以與兄曰物盡可復得爲吏坐贓終身捐棄兄感其言遂爲廉潔

詩取物傷廉恐累身愛兄誠意出天真已知切諫終無入甘自爲傭受苦辛傭得錢歸遺我兄包苴代此足營生坐贓一語開心病貪汚終能變潔

清

鄭均은 한나라 임성 사람이니 형이 고을 원이 되여 남의 주느 거슬 만히 밧거늘 균이 조조간하되 듯디 아니하니 균이 나가서 몸소 베으러 하히 남

은 매 돈과 비단을 만히 어더 도라와 형을 주고 곧 오디 지물은 진하 여도가 히다 시어 드러니와 탐장의 좌죄하면 종신 두록 비리이느니이다 하대 형이 그 말을 감동하 여 드디여 청남한 사람이 되니라

王倫行實圖
趙孝就烹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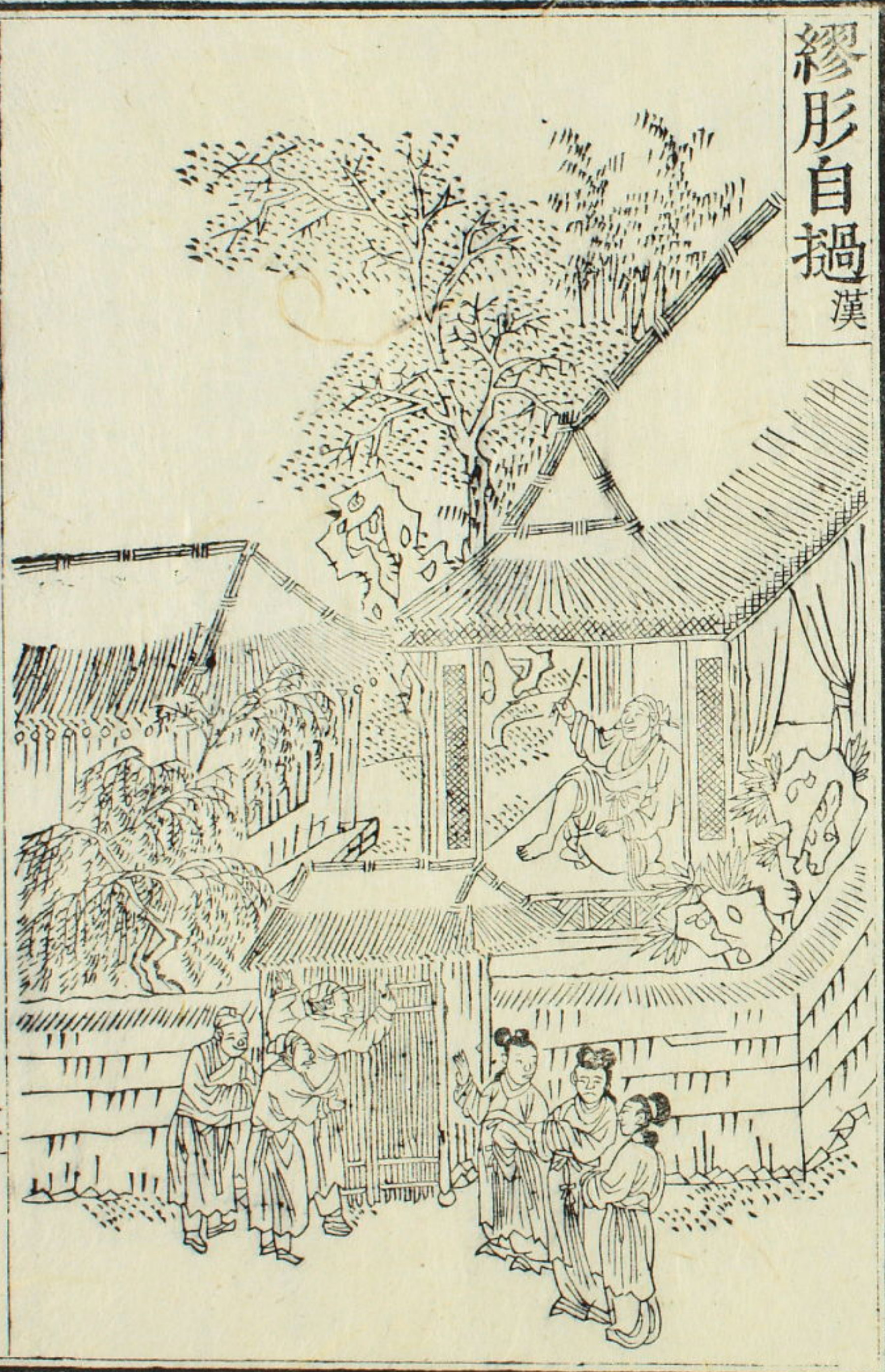
趙孝沛國人遭天下亂人相食孝弟禮為賊所得將烹之孝聞即自縛詣賊曰禮久餓羸瘦不如孝肥飽賊大驚並釋之且謂曰可歸更持米糒來孝求不能得復往報賊願就烹眾異之遂不害明帝聞其行召拜諫議大夫

詩遭時不幸暗傷神人化為豺又食人自縛肥身
甘代弟野心猶感有天倫 野清何處更求糒垂
橐歸來願就烹異行能回羣盜腹高名宜徹九天
明

묘효는 한나라 패국 사름이 너런해 크게 어스러

위사롭이 서로 잡아먹을시효의아이도적의게
 잡히여술마먹으려하거늘회스스로결박하여
 도적을보고곧오디내아은오리주려날만티
 술디디못하니청권대날을술므라호대도적이
 크게놀나형테를다노흐며닐오디네도라가
 미시를가지고오라하거늘회구호디엇디못호
 디라다시가셔도적의게고호고숨겨디라하니
 다괴이히너겨노하보내니현지드르시고간의
 래우벼술을하이시다

繆彤自搗 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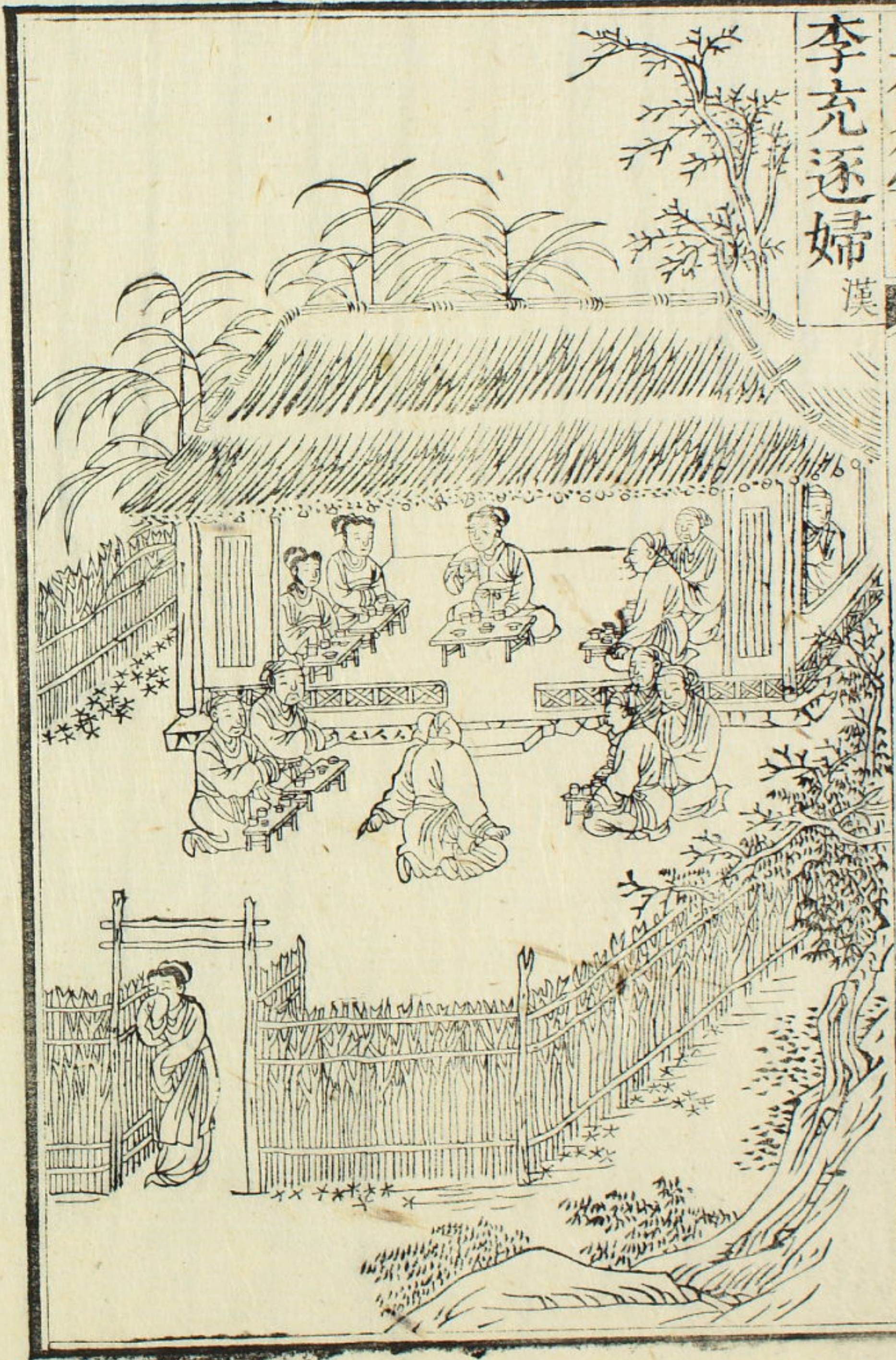
繆彤汝南人少孤兄弟四人皆同財產及各娶妻諸婦遂求分異又數有鬪爭之言彤深懷憤歎乃掩戶自搗曰繆彤汝脩身謹行學聖人之法將以齊整風俗奈何不能正其家乎弟及諸婦聞之悉叩頭謝罪遂更為敦睦之行

詩早孤諸季與同居娶婦求分罪在予掩戶自搗能感彼一家敦睦得如初 同氣相分自責深能令諸婦便回心是知友愛由天性喋血相殘獸與禽

목용은한나라여남사람이니일즉부모를여희

고형테네사람이호집에서사더니각각당가들
매여러지어미다씩로나려하고또조듯듯거
놀용이갑히애들나너겨이에문을닫고스스로
티며척하여곧오디목용아네몸을다고히실음을
삼가성인의법을비호은장춧공속을텅제하러
하거늘엇디하여능히그집을바르디못하노
흐대여러아오와지어미다마리를두드려샤죄
하고드디어서로화목하더라

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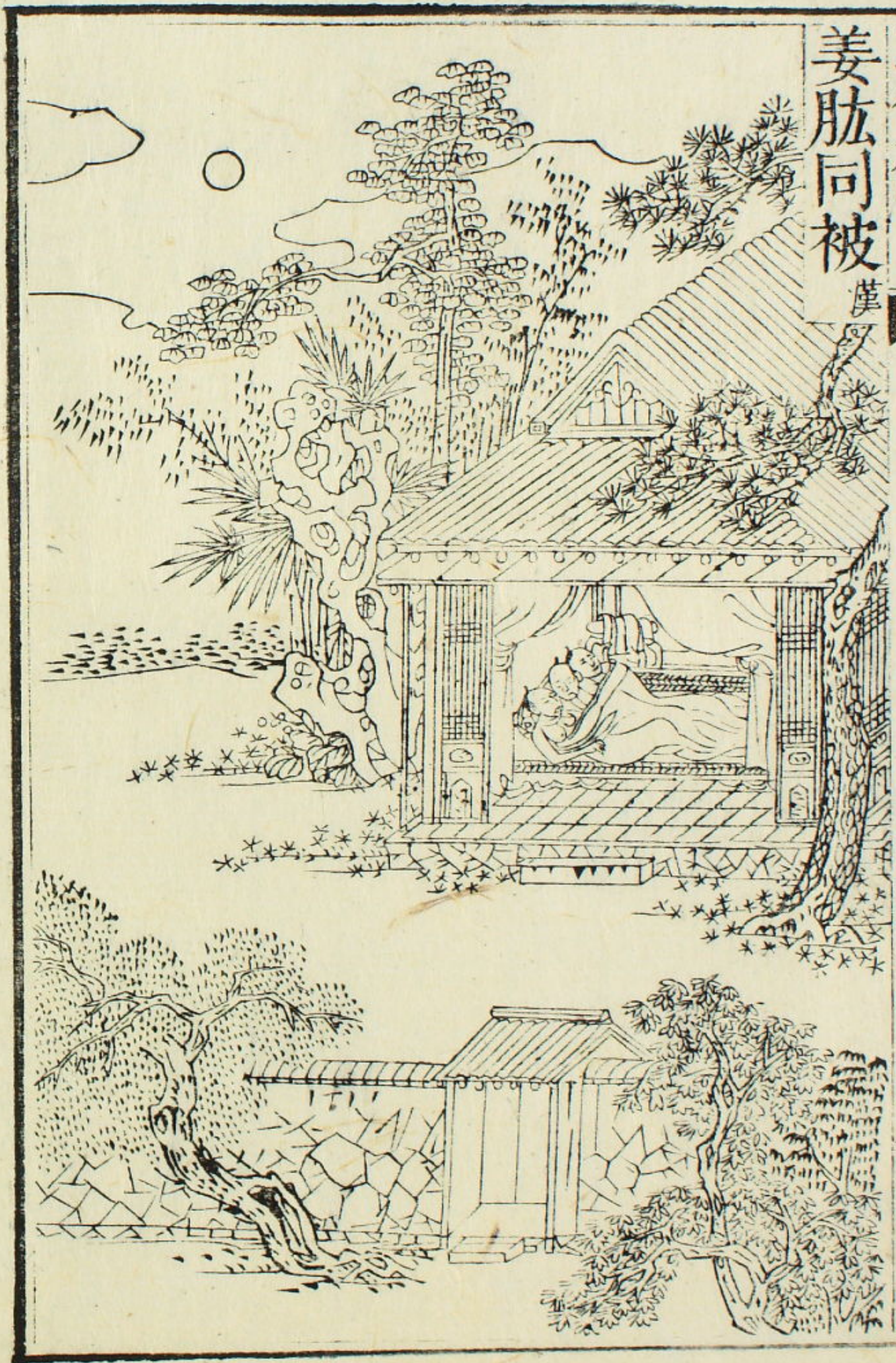


李充陳畱人家貧兄弟六人同衣遞食妻竊謂充曰
 今貧居如此難以久安願思分異充偽酬之曰如欲
 別居當醞酒具會請呼鄉里內外共議其事婦從充
 置酒讌客充坐中前跪白母曰此婦無狀而教充離
 間母子兄弟罪合遣斥便呵叱其婦逐令出門婦銜
 涕而去

詩悍妻當日怨家貧不念鵠原骨肉親會合鄉閭
 揮婦去割情全愛篤天倫 同衣遞食意慙慙長
 枕當年不擬分何物婦人饒間舌一心愈更切簾
 頃

니 튕은 한 나라 진류 사름이 니 형테 육인이 옷과
밥을 서로 남고 먹더니 튕의 체 마만이 튕드려 날
오디이 제가 난 흥기 이러 튕 흥니 오래 흥가 지로
잇기 어려 온 디라 원 권대 각 각 사 라 디라 흥니 튕
이 거 죽 허 락 흥 여 곧 오 디 맛 당 이 술 을 마 초 와 잔
치 를 배 플 고 모 음 과 집 사 름 을 다 모 호 고 그 일 을
의 논 흥 리 라 체 그 말 디 로 술 을 두 어 잔 처 흥 시 튕
이 좌 등 의 나 아 가 꾸 러 어 의 게 고 흥 여 곧 오 디 이
겨 집 이 무 상 흥 여 튕 을 마 르 처 모 조 와 형 테 둘 니
간 흥 니 그 죄 맛 당 이 버 티 리 로 소 이 다 흥 고 문 득

그쳐 룰 크 게 꾸 덧 고 문 밧 기 모 라 내 티 니 체 울 며
가 더 라



姜肱彭城人家世名族與二弟仲海季江俱以孝行
 著聞友愛天至嘗共臥起及各娶妻兄弟相戀不能
 別寢以係嗣當立乃遞往就室嘗與季江適野遇盜
 欲殺之兄弟爭死肱曰弟年幼父母所憐愍又未聘
 娶願自殺身濟弟季江言兄年德在前家之珍寶國
 之英俊乞自受戮以代兄命盜戢刃曰二君賢人吾
 等不良妄相侵犯乃兩釋之

詩二弟同居共一衾天倫情至友于深蒼皇遇難
 爭投死兩釋終能感賊心 弟恭兄友若墳麓居
 寢須臾不忍離更有至情難掩處共看爭死冒危

時

강평은 한 나라 평성 사람이니 디디로 일흠난 집
이라 두아 응해와 계강으로 더브러 다 호형이
잇고 우의 지극 하 여형테 미양 하니 블에서 자더
니 각각 양가 들매 차 마셔 나디 못 하 되 속을 위
하 여 곧 마드려 제 방에 가 자 더니 흘는 계강으로
더브러 들히 나가다가 도적을 만나 죽이려 하거
늘 형테 죽기 룬드 토와 평이 곧 오디 아 응는 나히
어리고 부외 사랑 하시고 또 양가 못드러 시니 원
컨대 스스로 죽어 아 응를 살려 디라 하 니 계강이

곧 오디 형은 나히 만코 덕이 높하 집에 보배 오나
라히 영결이라 빌건대 내 죽어서 형의 명을 디신
하리라도 적이 칼을 거두고 곧 오디 그디는 어진
사람이 어늘 우리 불량 하 여 범을 엿노라 하고 다
노흐니라

王覽爭醜

晉



王覽祥之弟與祥友愛甚篤母朱氏遇祥無道覽季數歲見祥被楚撻輒涕泣抱持至於成童每諫其母其母少止凶虐朱屢以非理使祥覽輒與祥俱又虐使祥妻覽妻亦趨而共之朱患之乃止朱密使醜祥覽知之徑起取酒祥疑其有毒爭而不與朱遽奪覆之自後朱賜祥饌覽輒先嘗朱懼覽致斃遂止

詩囂母時時虐視兄看兄被撻痛兒情身同室婦代兄嫂共服勤勞庶感誠 醜非好酒何宜飲兄弟爭持母取翻從此母飡兒輒試周旋母子竟全恩

딘나라왕남은왕상의어미다른아이라상으로
더브러우인지극하여그어미쥬시상을무도히
더접하니남의나히두어술에상의매마즈물보
면문득올며붓잡더니남이당성매미양그어
미를간하여말리니져기사오나오물그치더라
쥬시여러번못홀일로상을부리니남이반드시
훈가지로하고또상의안히를부리면남의안히
조차又티하니쥬시민망히너겨부리디못하더
라쥬시또마만이술에독을너혀상을먹이려하
니남이알고드러그술을마시려하대상이

또훈독이잇는가 의심하여드토와남을주디아
니훈대쥬시급히그술을아사업더르니이후는
쥬시음식을상을주면남이미양몬져맛보니쥬
시남이혹죽을가두려하여다시그리아니하
라

庾袞守病

晉



庾袞潁川人咸寧中大疫二兄俱亡次兄毗復危殆
 癘氣方熾父母諸弟皆出次于外袞獨留不去諸父
 兄強之乃曰袞性不畏病遂親自扶持晝夜不眠其
 間復撫柩哀臨不輟如此十有餘旬疫勢既歇家人
 乃反毗病得差袞亦無恙父老咸曰異哉此子守人
 所不能守行人所不能行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
 始知疫癘之不能相染也

詩當患須看友愛真撫亡扶病極勤辛十旬晝夜
 終無恙癘疫從知不染人 兩兄俱沒次兄危出
 次人人謹避之能守眾人難守處待看松柏歲寒

時

유곤은 딴나라 영천 사람이니 함녕_{딘무테대} 등애_{년호리}에
 임병이 크게 치성하여 두형이 다 임병의 죽고 버
 금형이 또 병드러 위티하니 부모와 여러 아이다
 밧그로 피하여 나가 되곤이 홀로 가디 아니하니
 여러 부형이 강권하여 피하라 하니 곧은이 곧 오
 디내 본디 병을 두려워 아니 하니 노라 하고 그 형을
 친히 붓드러 듀야로 자디 아니 하니 그 소이 또 죽
 은 형의 관을 이르문져 슬피 우니 이러 텃스기 여
 러 들을 디나 매 짐 사람이 도라와 보니 형의 병이

이의나 앓고 곤도 또 호무양하다 라 어 른들이 다
 곧 오 디이 상하 다 이 아히 남 못 할 일을 드이 하
 나 치운 후에 송백이 아나 무름을 안다 하니 비로
 소 병이 능히 전염 디 못 하니 아 랫 노라 하니 터라

王密易弟

晉



王密上郡人嘗與弟儁子元直如涼州路中糧匱密
畱儁元直於途乞丐民間比還儁爲賊所掠元直逃
逸密乃將元直追賊叩頭求哀曰人情自當皆愛其
子但此弟未生家君見背孤遺相長以至于今請以
元直易儁賊相謂曰以子易弟義之大也於是以儁
元直授密而去密後亡儁勺水不入口者五日雖服
喪期年而心喪六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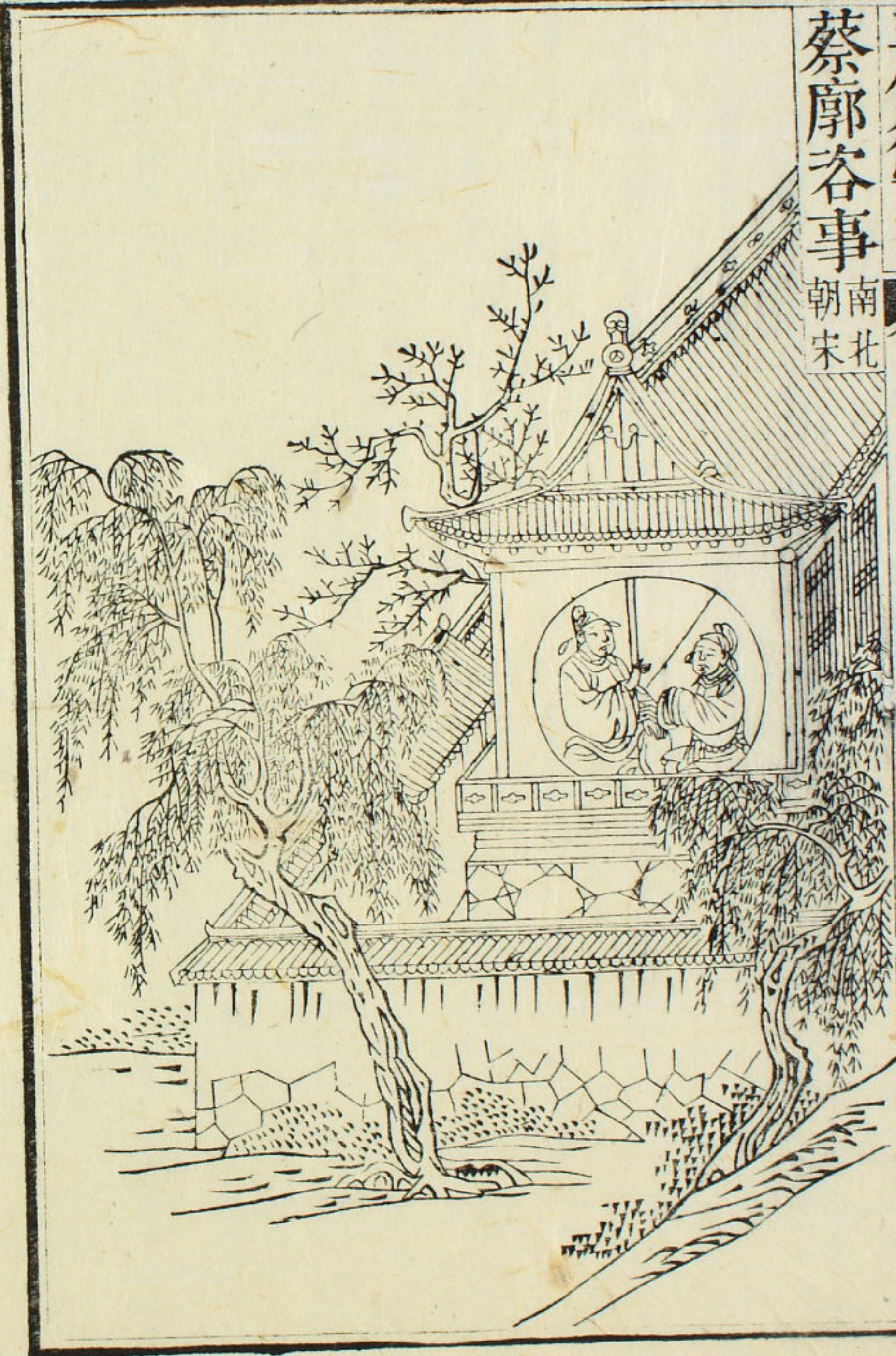
詩道出涼州乞丐歸旋聞阿弟賊中圍將兒換弟
真情切盜賊無知亦解悲 亡親遺腹只斯人相
愛相憐若一身苟保吾兒棄吾弟九泉何以謁吾

親

왕밀은 단나라 상군 사람이니 일즉 아이준과 아
들원직으로터 브러 길을 가다가 낭식이 다 쓴 허
디니 준과 원직을 길히며므로 고밀이 스스로로
을의가 밥을 비려도라오니 그스이도적이와서
준을 잡아 가고 원직은 도망하니 밀이 이에 원직
을드리고도적을 쓰라가마리틀조으며의걸
여졸오티인정이응당죽식을 사랑하니 다만이
아이는나디아니하여서아비죽거늘내길러내
여이날사디니르니청권대내아들과 밧고와디

라하니도적이서로닐오티죽식으로버아이
밧고몬크게어딘일이라하고준과원직을다노
코가니그후에밀이죽으며준이닷시를몰도아
니먹고비록기년복을넘으나 늙년을심상하니
라

南北朝宋



蔡廓濟陽人奉兄軌如父家事大小皆諮而後行公
 祿賞賜一皆入軌有所資須悉就典者請焉從高祖
 在彭城妻郝氏書求夏服廓答曰知須夏服計給事
 自應相供無容別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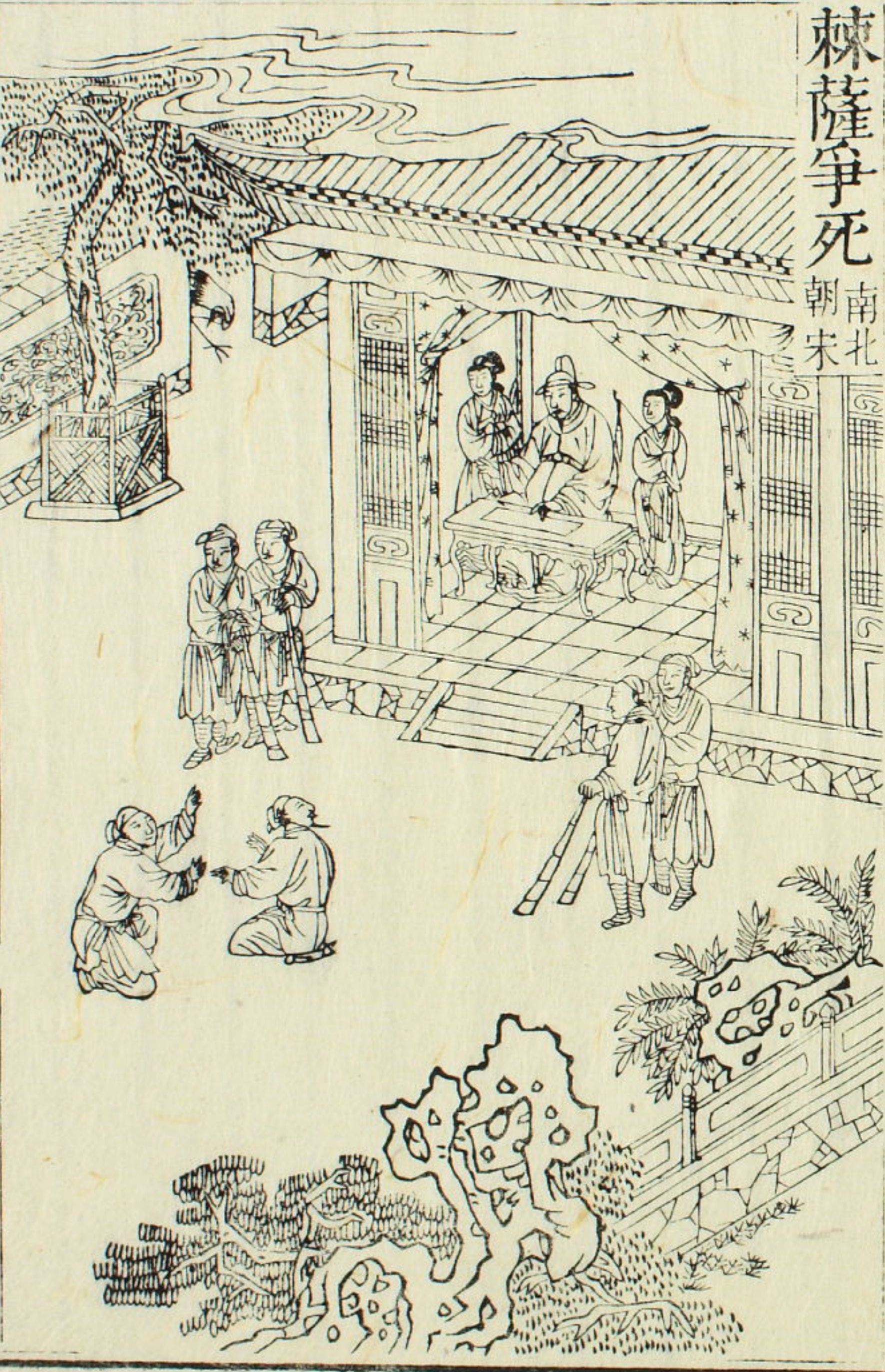
詩奉兄如父敬無違家有尊嚴孰敢私祿賜盡應
 歸一室事無專制必先咨 扈從君王苦未回妻
 求夏服寄書來計給只言存典者稍無私意汚靈
 臺

채학은송나라테양사람이니형섬기기름아비
 와스티하여집안대소스물다형의게취품호후

에 힘흥고벼슬에나노거슬다형의게드리고
덕이시면반드시맛든사름의게청흥여쓰고
이님군을되셔나갓거늘그안히편디흥여
오솔구흥니확이덕답흥되여름오스응당
맛다공금흥니이시니내셔로보별일업다
흥더라

棘薩爭死

南北朝宋



孫棘彭城人事母至孝母臨亡以小兒薩屬棘大明五年發三五丁薩應充行坐違期不至棘詣郡辭列棘爲家長令弟不行罪應百死乞以身代薩薩又自引太守張岱疑其不實以棘薩各置一處報云聽其相代顏色並悅甘心赴死棘妻許又寄語屬棘曰君當門戶豈可委罪小郎且大家臨亡以小郎屬君竟未娶妻君已有二兒死復何恨岱表上詔特原罪州加辟命並賜帛

詩弟兄爭死豈要名乃婦猶知棘死輕帝感三人倫懿篤宥全門戶又褒旌 兄念慈親鞠子哀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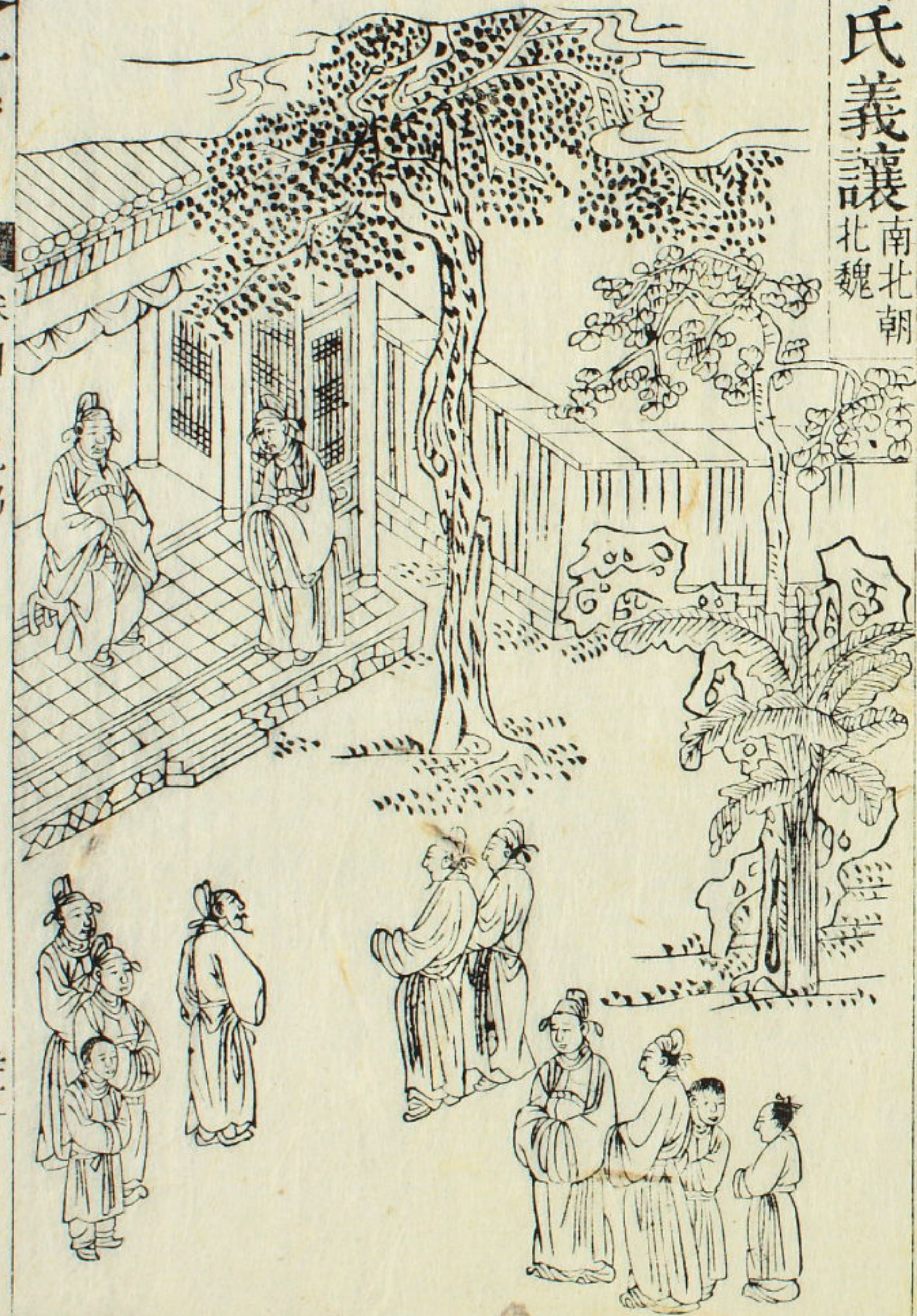
思天顯克恭哉當前斧鉞爭趨赴豈料金鷄放赦

回

손극은송나라평성사람이니어미를돌지효로섬기더니어미님종에어린아들로극의게부탁하엿더니나라히군정을쇼발홀시그아이군정에색이여가다가의약을밧디못하니죽을죄라극이관가에나아가고호되내가당이되여아오로하여곰밧처가디못하게하니빅번죽어맛당하디라청컨대극의몸으로아오를되신하여디라하니아아쓰스스로죄를당하거늘태쉬그성실

티아닌가의심흥여형테를각각두고닐오던네
 원덕로흥리라하니다깃거흥는빗치이셔죽기
 룰어려워아니흥고극의안히하시또극의게말
 을부쳐골오던그덕문호를당흥여시니엇디저
 근아으의게죄를미로리오또의어버이님종에
 쇼랑으로그덕를맛젓거닐며참내흔인도못흥
 흥그덕논이미두주식이이시니죽은돌무어솔
 흥셔흥여특별이죄를샤흥시고다비단을주시
 흥고흥로불러쓰라흥시다

楊氏義讓 南北朝 北魏



王作行實圖
楊播弘農人與弟春津並敦義讓昆季相事有如父子兄弟朝則聚於廳堂終日相對未曾入內有一美味不集不食廳堂間往往幃幔隔障爲寢息之所時就休偃還共談笑春年老曾他處醉歸津扶持還室仍假寢閣前承候安否春津年過六十並登台鼎而津尚朝暮參問子姪羅列階下春不命坐津不敢坐春每近出或日斜不至津不先飯春還然後共食食則津親授匙飭味皆先嘗春命食然後食春在京宅每有時味輒因使次付之若或未寄不先入口春每得所寄輒對之泣下一家之內男女百口總服同爨

庭無間言

詩楊家義讓篤天倫昆季儼如父子親一味共分
相對笑藹然和氣滿堂春 六秩聯登位鼎司平生
義敬老何衰朝朝參問情無倦扶醉兄歸弟授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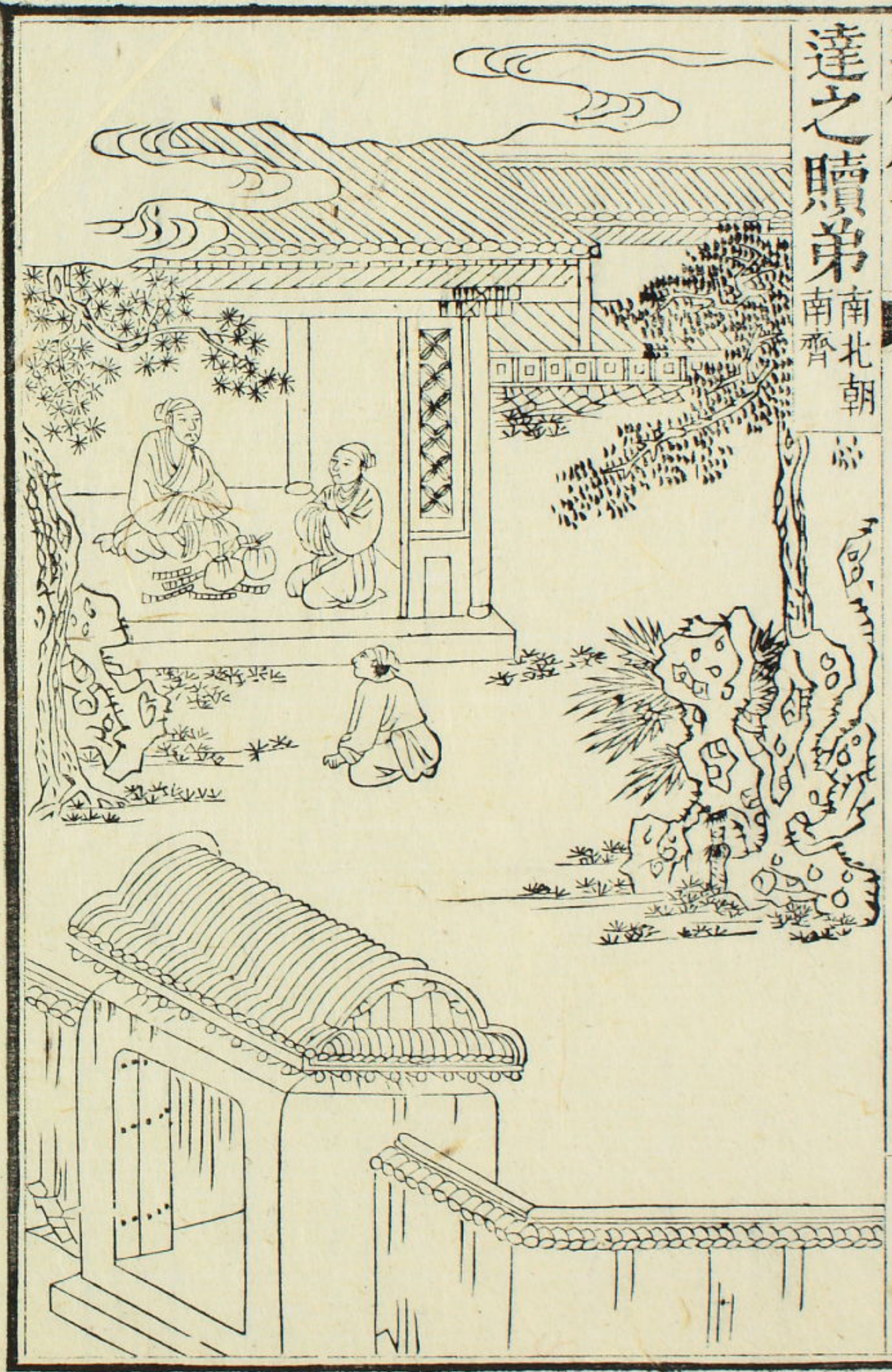
양과논위나라홍농사람이니그아으춘과진으
로더브러서로섬기미부즈마트여아침이면형
테대청에모히여종일토록상디히여안흐로도
러가디아니고고조흔음식이이시매못디아니
면아니먹고대청스이에양을마리와혈소를민

五倫行實圖
드라혹가셔쉬다가도로와호가더로담쇼호고
춘의나히늬은후에나갓다가취호여도라오면
진이붓드러방에드리고인호여창밧괴셔자다
가술써기롤기드려문안호고춘과진이나히늬
십이디나고다지샹벼술에올라시되진이오히
려도석으로문안호시즈질들은섬아리나렬호
고춘이안즈라아니호면진이감히안셔못호고
춘이미양갓가이나갓다가혹져므도록오디아
니호면진이밤을먹디아니호고춘을기드려먹
으며춘이밤먹을새면진이친히술과져롤밧드

러드리고음식을다몬져맛보며춘이먹으라호
후에먹으며춘이셔울집의이실새에진이혹시
절음식을어드면문득인편에부쳐보내되춘의
게보내디못호면몬져입에너티아니호니춘이
미양진의보낸거술보면디호여눈물을느리오
니호집안에남녀빅귀식복지천사지호디밧지
어먹고스이에다른말이업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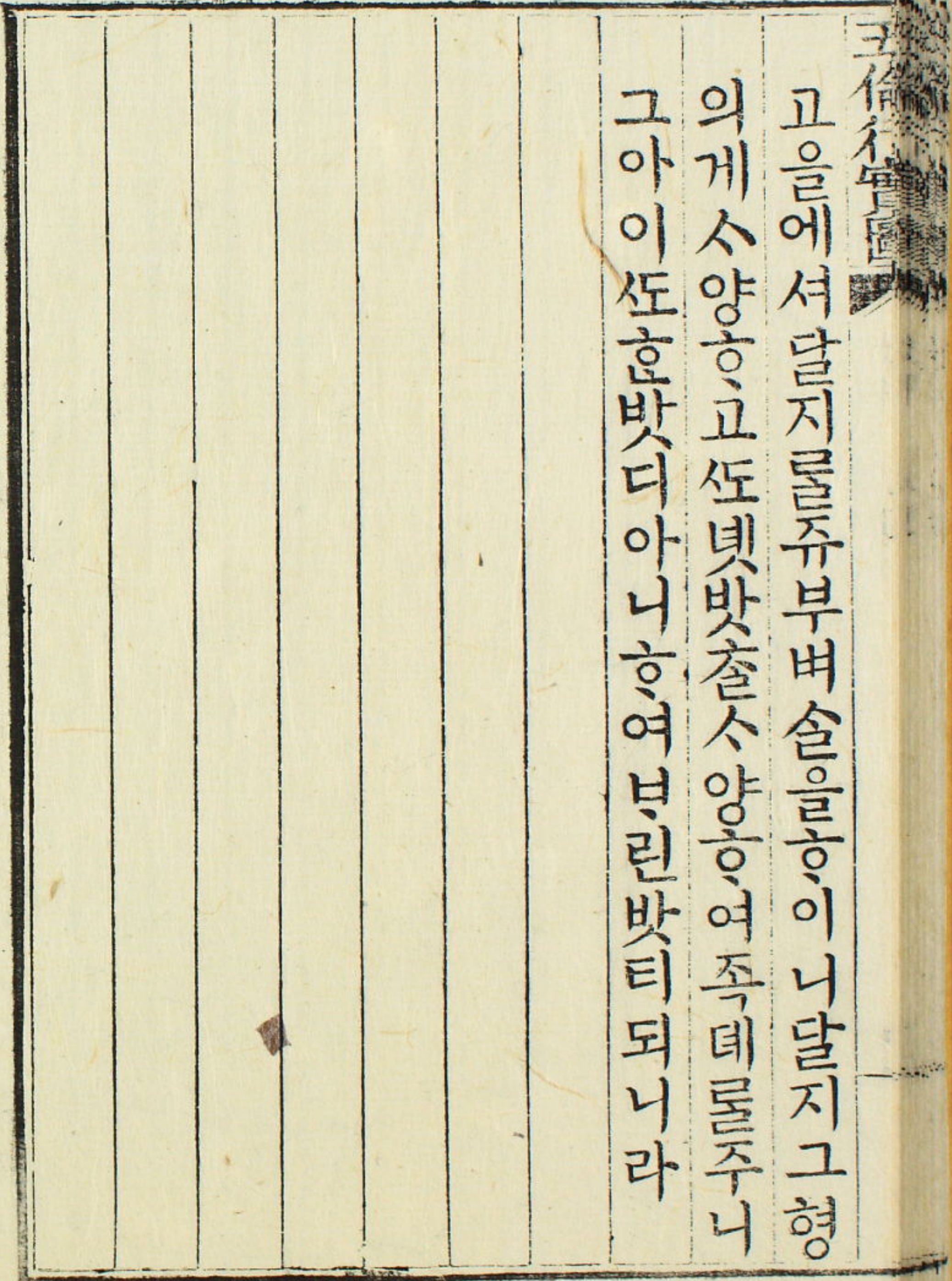
達之贖弟

南北朝南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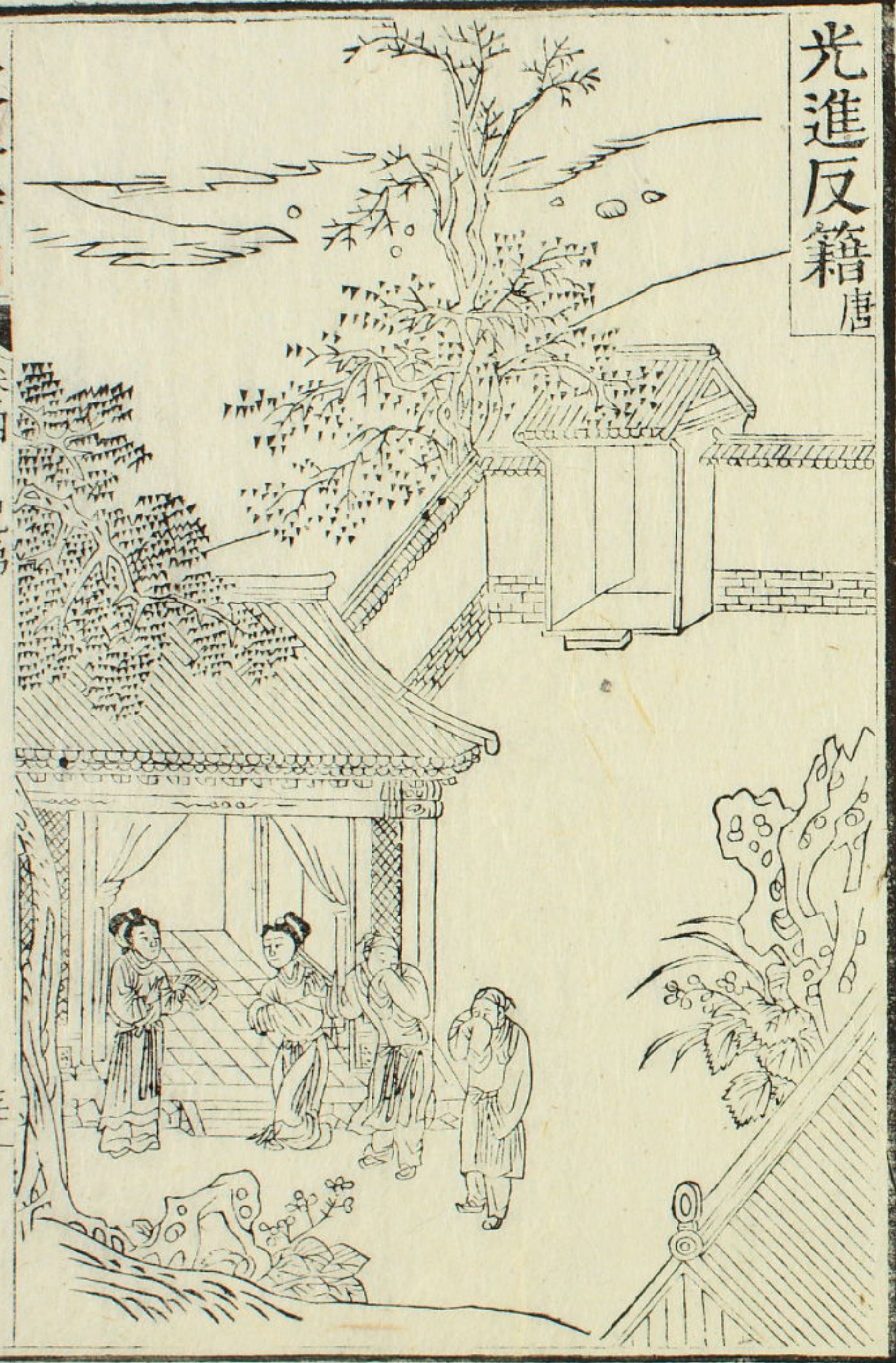


吳達之義興人從祖弟敬伯夫妻荒年被略賣江北
 達之有田十畝貨以贖之同財共宅郡命爲主簿固
 以讓兄又讓世舊田與族弟弟亦不受田遂閑廢
 詩那堪骨肉沒輿僮破產還收與共財職讓於兄
 田讓弟天倫外物視塵埃 賣業慇懃贖弟還同
 財共宅任飢寒世間無限爭田者聞却高風定汗
 顏
 오달지는제나라의 흥사람이니 녹촌아오경빅
 의부체흥년을 만나먼사히 풀넷거늘달지밭출
 프라드리고사내여지물과집을훈가지로호며

고을에서 달지를 주부 베풀어 술을 흥이 나 달지 그 형
의게 사양하고 또 넷 밭을 사양하여 족테를 주니
그 아이도 흥 밭이 아니 흥여 버린 밭이 되니라



光進反籍唐



李光進鷄田人事親有至性母歿居喪三年不歸寢
弟光顏先娶而母委以家事及光進娶母已亡弟婦
籍貲貯納管鑰於妯光進命反之曰婦逮事姑且嘗
命主家事不可改因相持泣乃如初

詩當年新婦拜姑前主饋辛勤久且專今日母亡
那忍改泣還家籍故依然 萬古天倫終不泯乖
離只在利錙銖欲知兄弟相安處須看斯門反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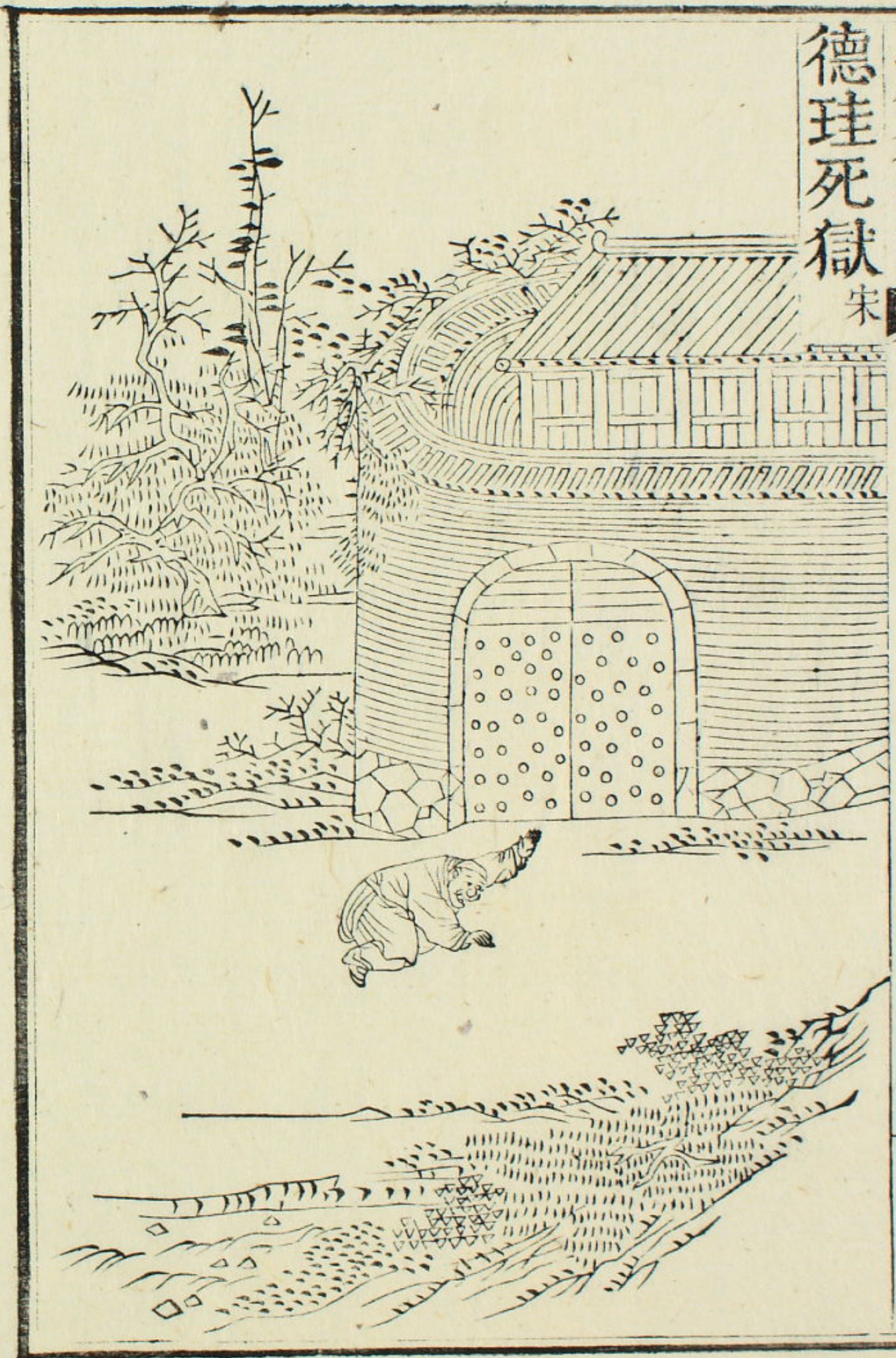
圖

니광진은당나라계전사람이니어버이섬기믈
지효로하더니어미죽으매거상삼년에침실의

도라가디아니하더라아오광안이몬져당가드
니어미가스물다맛졌더니밋광진이당가들제
어미의죽어시니광안의체지산문셔와자믈
쇠를다광진의쳐를주니광진이봉하여도로주
고존오디제쉬일즉모친을섬기고가스물맛져
겨시니고치디못하리라하고인하야형테붓들
고우러어미이실새와곳치하더라

德珪死獄

宋



鄭德珪浦江人與弟德璋孝友天至晝則聯几案夜則同衾被德璋素剛直為仇家陷以死罪當會逮揚州德珪哀弟之見誣乃陽謂曰彼欲害吾也何預爾事我往則奸狀白爾去得不死乎即治行德璋追至道中兄弟相持頓足哭爭欲就死德珪默計沮其行夜將半從間道逸去德璋復追至廣陵德珪已死於獄德璋聞之慟絕者數四負骨歸葬廬墓再碁每一悲號烏鵲皆翔集不去

詩同衾聯几每相須不意剛剛陷罪誣視死如歸爭就獄牽留道上泣相扶夜半潛歸死獄中廣

五倫行實圖

陵追至慟何窮再葺廬墓哀號處烏鵲飛翔慰怨衷

딩덕규는송나라포강사름이니아으덕장으로
더브러효위지극하여나이면상을년하여안조
며밤이면니블을훈가지로하더니덕장이본디
강직하디라놈의게무함훈배되여죽을죄로갓
치게되엇거늘덕귀아의무죄하믈불상이너겨
덕장드려거죽닐러곧오디제날을해하고저하
미니내가면저의간상을혹빅하리라하고즉시
길을출여가니덕장이등노의사라와형테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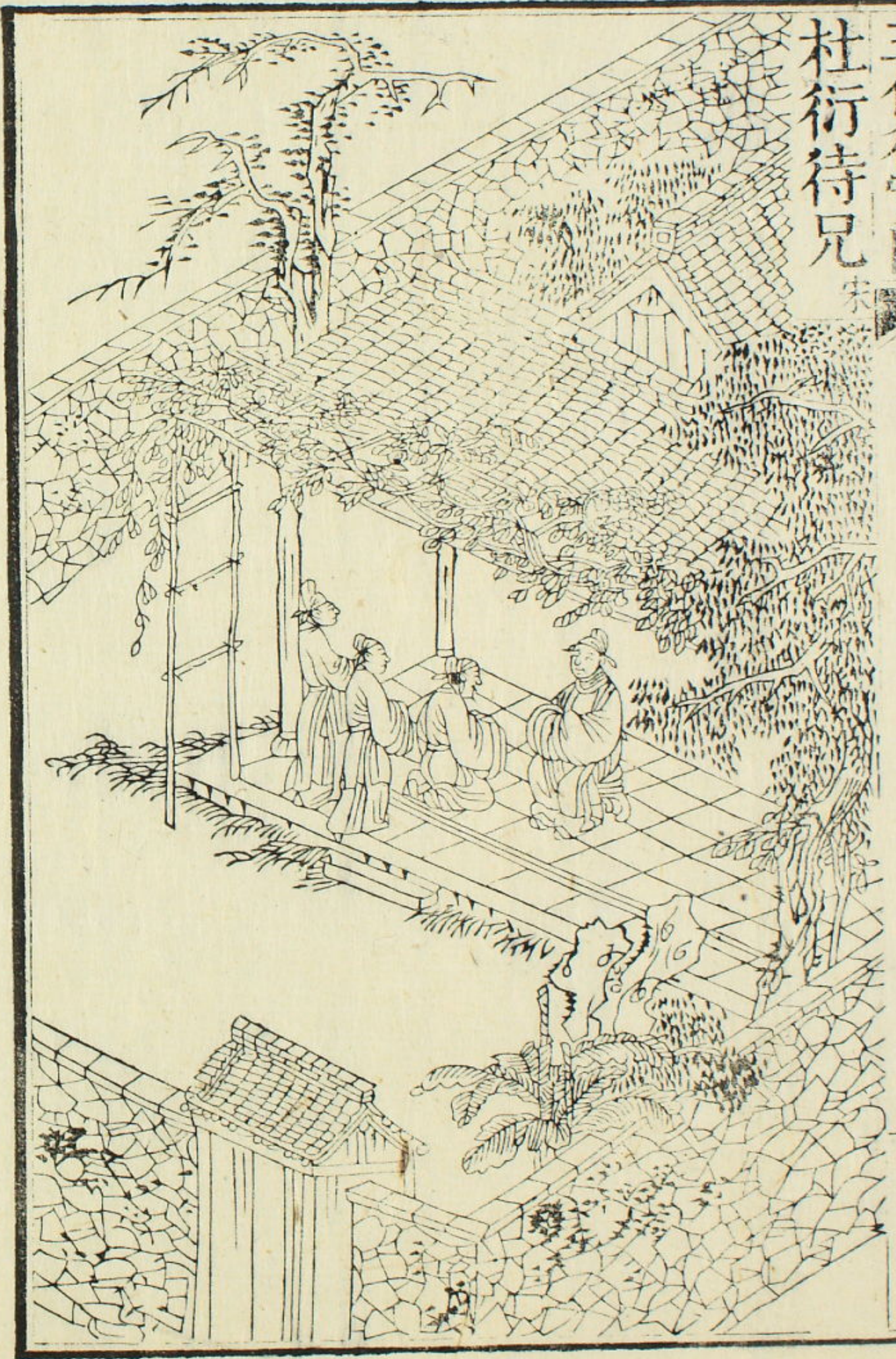
붓들고울며죽기롤드틀시덕귀아으롤못오게
하여밤이깊은후에사이길로차자만이드라
나니덕장이사라와광능사하니르니덕귀이
의옥에셔죽은디라덕장이이말을듯고통곡하
여여러번괴절하다가덕규의죽음을지고도라
와못은후에두히를슈묘하니미양슬피울면가
막가치느라와가디아니하더라

五倫行實圖

卷四 兄弟

三十一

五倫行實圖
杜衍待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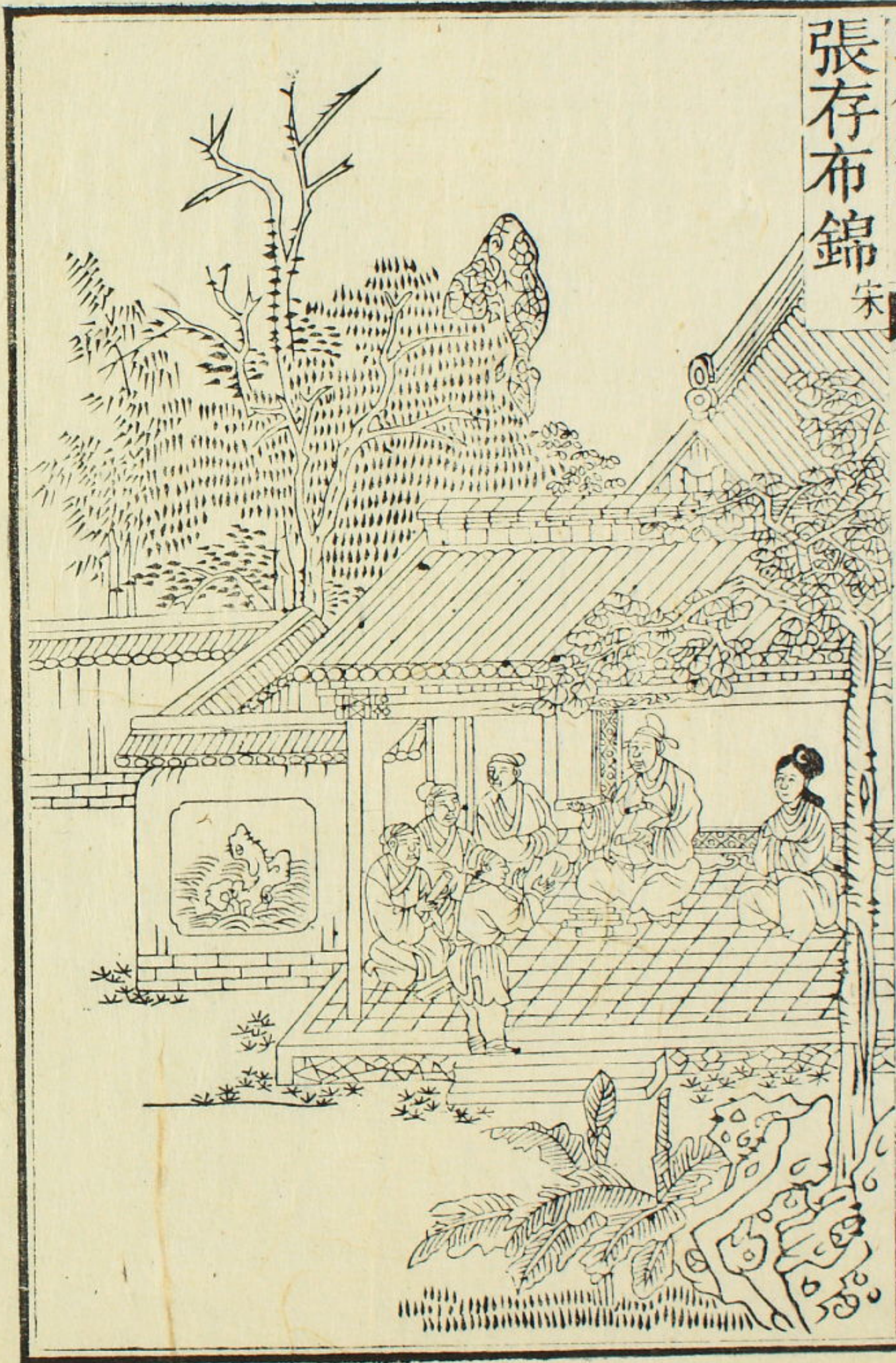


杜衍山陰人前母有二子不孝悌其母改適河陽錢氏祖母卒衍年十五六二兄遇之無狀至引劍斫之傷腦出血數升其姑匿之僅以得免乃詣河陽歸其母繼父不容來孟洛間貧傭書以自資及貴其長兄猶存待遇甚有恩禮二兄及錢氏姑子孫受衍蔭補官者數人仍皆爲之婚嫁

詩兄心無狀母歸人引劍殘傷骨肉親出血數升無疾怨烝烝終化兩頑嚚天心福善理昭明豈爲傭書致顯榮不獨子孫多受蔭一門婚嫁亦能成

두연은 송나라 산음 사람이니 전모의게 두아들
 이이시되어 지디아니하고 그어미는 하양에 잇
 는 전시의게 키가 하니라 조외죽으매 연의나히
 열다섯인제 두형이사오나 이디 접흥여갈로마
 리를티니 피두어되 흐르거늘 그고외 숨겨 계요
 사라나 하양에 어미게가니 계뷔 어미가 호
지아비라 용남
 디아니 커늘 놉의 삭글시를 써주고 계요 조성흥
 더니 그후 벼슬이 높으매 못형이 오히려 사라잇
 는 디라 디접흥을 지극히 하고 두형과 고모와 계
 부의 조손들이 연의음으로 벼슬은 재여러 사람

이오연이 다훈의하연주니라



張存冀州人性孝友嘗爲蜀郡得奇繒文錦以歸悉
 布於堂上恣兄弟擇取常曰兄弟手足也妻妾外舍
 人耳奈何先外人而後手足乎收卹宗屬嫁聘窮嫠
 不使一人失所家居矜莊子孫非正衣冠不見

詩稟性於天篤友于從來不復念妻孥相懷只見
 連枝重堂上文繒盡向輸 手足何如外舍人肯
 先家室後天倫收卹孤嫠婚嫁畢誰能似子篤親
 親

당존은송나라귀쥬사람이니런성이효도롭고
 우이하더니일즉촉군에원을하여갓다가김과

비단을어더도라와다당우히퍼노코형테로호
 여곰모음대로존히여가지라호고익양닐오디
 형테는손과발긋고쳐첩은놈의집사람이니엇
 디놈의집사람을몬져호고손발을후에호리오
 호고종족을거두어당가드리고셔방맛쳐호사
 림도의디업게아니호고집안에이실제거동이
 엄팅하니조손이의관을바르디아니호면되디
 못호터라

彥霄析籍 宋



趙彥霄兄弟二人同爨十二年兄彥雲惟聲色博弈是娛生業壞已逾半彥霄諫不入遂求析籍及五年而兄之生計蕩然矣公私逋負尚千餘緡彥霄因除夕置酒邀兄嫂而告之曰向者初無分爨意以兄用度不節恐皆蕩盡俱有飢寒之憂今幸畱一半亦足以給伏臘兄自今復歸中堂以主家務卽取分書付之火管鑰之屬悉以付焉又以已儲錢償其所逋負兄初有慚色不從不得已而受之次年彥霄一舉登第鄉人大敬服之

詩同爨曾經一紀餘可憐家業漸蕭疎無端析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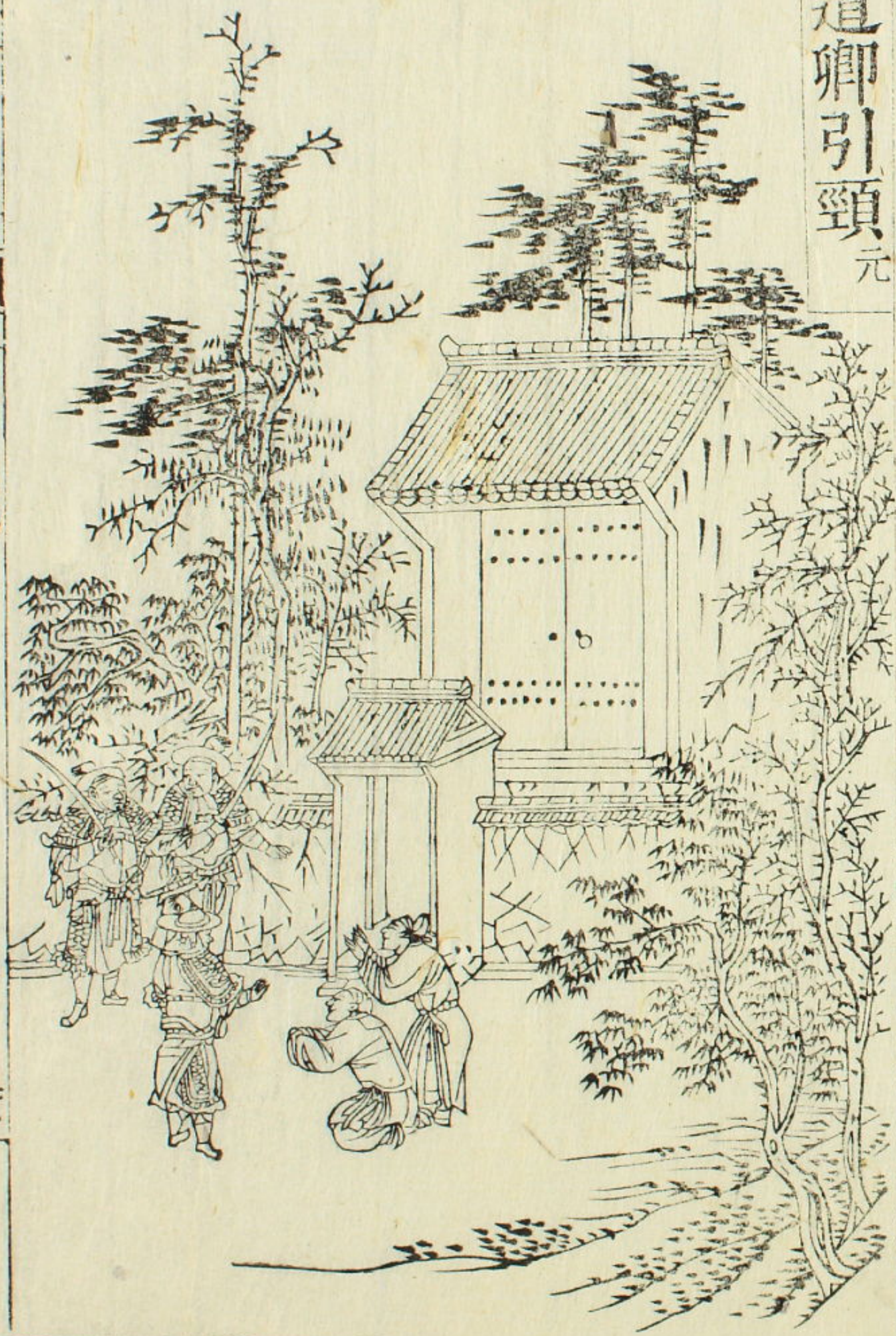
兄應恠丹懇他年見火書 兄蕩家資弟析居五年贏得有遺儲慇懃更酌元宵酒從此阿兄復主廬

도언쇼는송나라사람이니형테열두히를훈디
밤지어먹고사더니그형언운이성식과잡기를
즐겨가산이점점파흐니언쇠간호디듯디아니
커늘드디여가산문셔를논화가지고각각먹고
잇더니다스히만의형의싱계이의탕진호고공
소의빛이천여금이라언쇠제셔 셋들그금
날이라 을인호
여술을마초고형수물청호여닐오디내본디분

저흥의 시업소 되 형이 저물쓰기를 존절티아니
 하니 두리 건대인 흥여탕진 흥여귀한을 면티 못
 흥가흥미러니 이제내가 산이 오히려반이이시
 니 족히명일에 주식은 마출디라 오늘부터 형이
 다시 텅당의이셔가 소를 쥬장 흥게 흥라 흥고 즉
 시분 저흥턴문서롤가져 불에 솔오고 여러 열쇠
 롤다 형수의게 맞디고 쏘져 축 흥엇던 돈을내여
 형의 빚을 다 갓흐니 그 형이 붓그려 흥다가 마디
 못 흥여바드니라 그이듬히에 언쇠 급테 흥니 일
 향사 례이다 탄복 흥더라

道卿引頸

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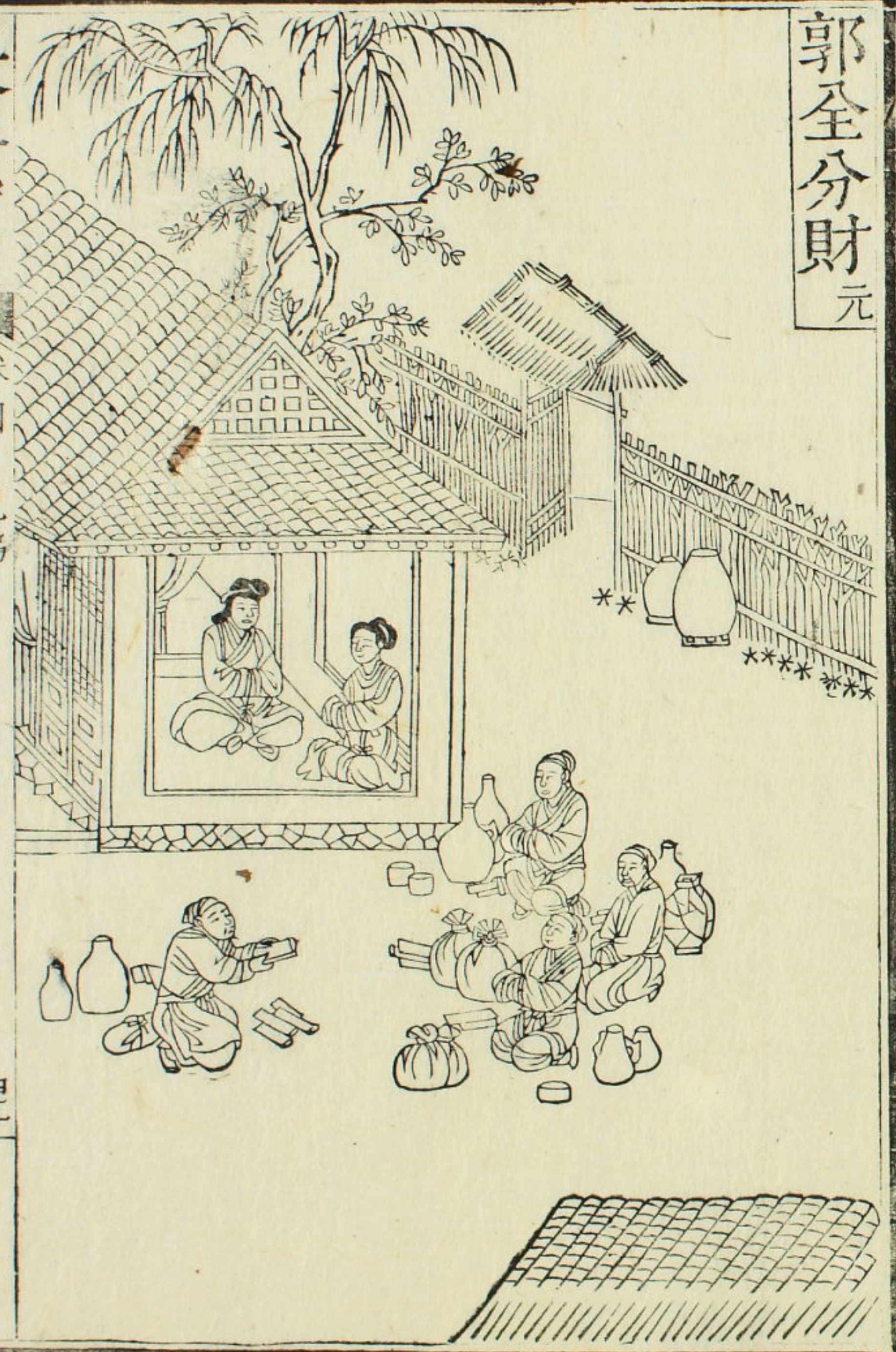
郭道卿莆田人四世祖義重以孝行著鄉里爲立孝子祠元初盜起居民多走匿道卿與弟佐卿獨守祠不忍去俱被執盜將殺佐卿道卿泣告曰吾有兒已長弟弱子幼請代弟死佐卿亦泣曰吾家事賴兄以理請殺我道卿固引頸請刃盜相顧曰汝孝門兄弟若此吾何忍害兩釋之

詩居民畏盜競逃奔獨守先祠只弟昆孝行固知天所與肯教兇豎害元孫 弟兄爭死意堪悲賊膽還寒引頸時兩釋只緣誠孝感芳名傳世永無期

팍도경은 원나라 보전사 례이니 그 고조의 등이 효행으로 일홈 잇더니 밋죽으매 향니사 례이 효조소를 세워 제하더라 그 후 도적이 나러나 박성이다더라 나되 도경은 홀로 아오 좌경을 드리고 스당을 덕희여 차마가디 못하다가 도적의게 잡히여 장차 좌경을 죽이려하니 도경이 울며 비러 곧 오디나논 자란 조식이 잇고 아오는 병약하교 또 조식이 어리니 청컨디 아오를 디신하 여 죽어 디라 호대 좌경이 또 울며 곧 오디내 형이 아니면 가소를 었디 다슬이 리오 청컨대 날을 죽이라 도

경이 또 목을 들의 허버히물청하니 도적이 서로
도라보와 곧오디너희는 효자의 집사름이오형
테또이러듯하니 우리엇디 차마해하리오오교
형테를다노하보내더라

郭全分財 元



郭全遼陽人事繼母唐古氏甚孝繼母生四子皆幼全躬耕以養既長娶婦各求分財異居全不能止凡田廬器物自取荒弊朽敗者奉唐古氏以居甘旨無乏

詩喫著艱辛共備嘗一朝分異可堪傷薄田破器吾當取甘旨無違奉後孃 薛包孝義世稱賢豈料君身更兩全青史昭垂名不泯又從圖畫上新

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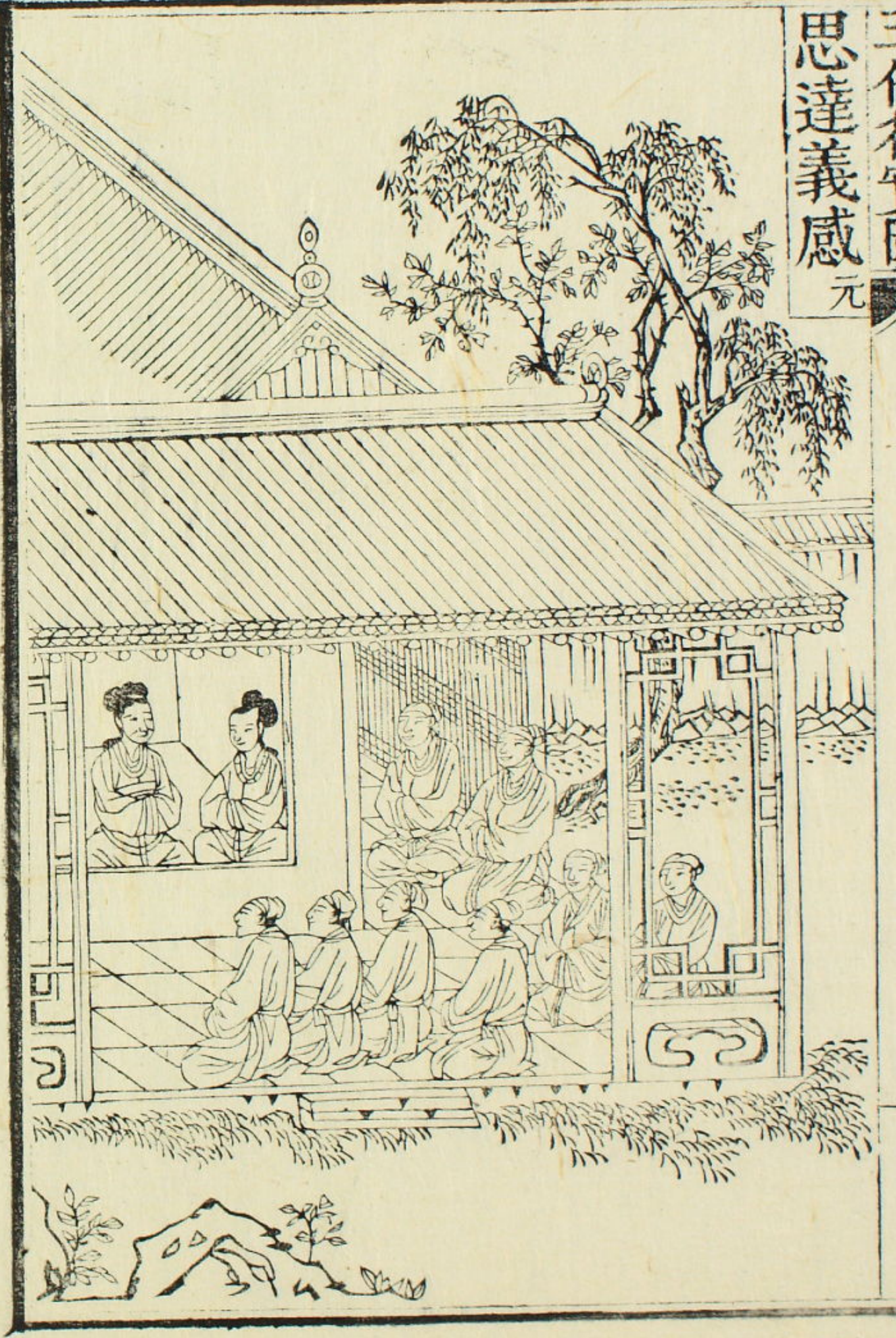
곽전은은원나라노양사름이니계모당고시를지성으로섬겨계모네아들을나하다어린디라전

이몸소밭가라먹이더니임의당성하여안히를어드매각각분지하여셔로사라디라호대전이말니디못하여전뒤귀물의남고엇지아닌거손스스로가져계모를밭들고이셔감지를펼힘이업더라

王倫不實圖

思達義感

元



吳思達蔚州人兄弟六人嘗以父命析居思達爲開
 平主簿父卒還家治葬畢會宗族泣告其母曰吾兄
 弟別處十餘年矣今多破產以一母所生忍使兄弟
 苦樂不均耶卽以家財代償其逋更復共居不數年
 宅後榆柳爲之連理人以爲友義所感焉

詩曾承嚴命各分居憂樂參差十載餘泣告慈親
 辭感激弟兄和氣塞窮閭 一體而分六箇身悲
 歡饒瘠豈宜偏捐財償債還相聚榆柳終看理亦
 連

오스달은원나라울쥬사름이니여스형테일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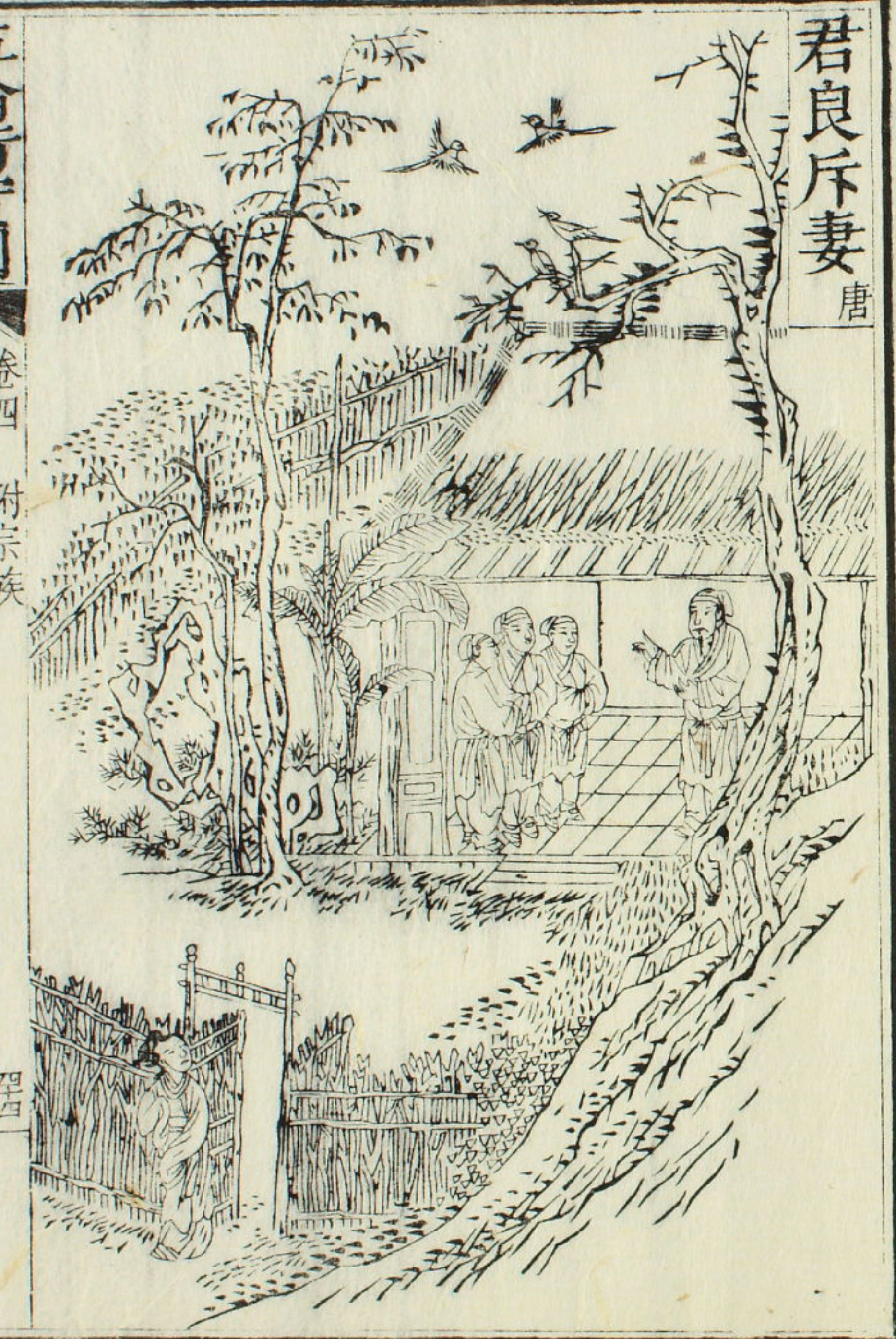
五倫不實圖

卷四 兄弟

望

아비명으로 각각 사더니 스달이 리 평쥬부벼슬
 을 흥였다가 아비죽으매 집에도라와 상장을 무
 촌 후에 스달이 종족을 모호고 울며 그 어미게 고
 흥여 곧 오디 우리 형테 쉼나 아션디 십여년이 러
 니 이제 형테 등애가 산을 파 흥니 만흔디 라엇디
 츠마 흥어 의소성으로 고락이 고로디 아니 케 흥
 리 오 흥고즉시 저물을 기우려 형테 의 빗을 가압고
 다 사 흥집의 모히여 사더니 두어히만의 짐뒤희
 버들과 느름남기년리 쉬되니 사름이 다닐오디
 우의 흥응험이라 흥터라

君良斥妻 唐



劉君良饒陽人四世同居族兄弟猶同產也門內斗粟尺帛無所私隋大業中荒饉妻勸其異居乃易置庭樹烏雛令鬪且鳴家人恠之妻曰天下亂禽鳥不相容况人耶君良卽與兄弟別處月餘密知其計因斥去妻曰爾破吾家召兄弟流涕以告更復同居貞觀六年表異其門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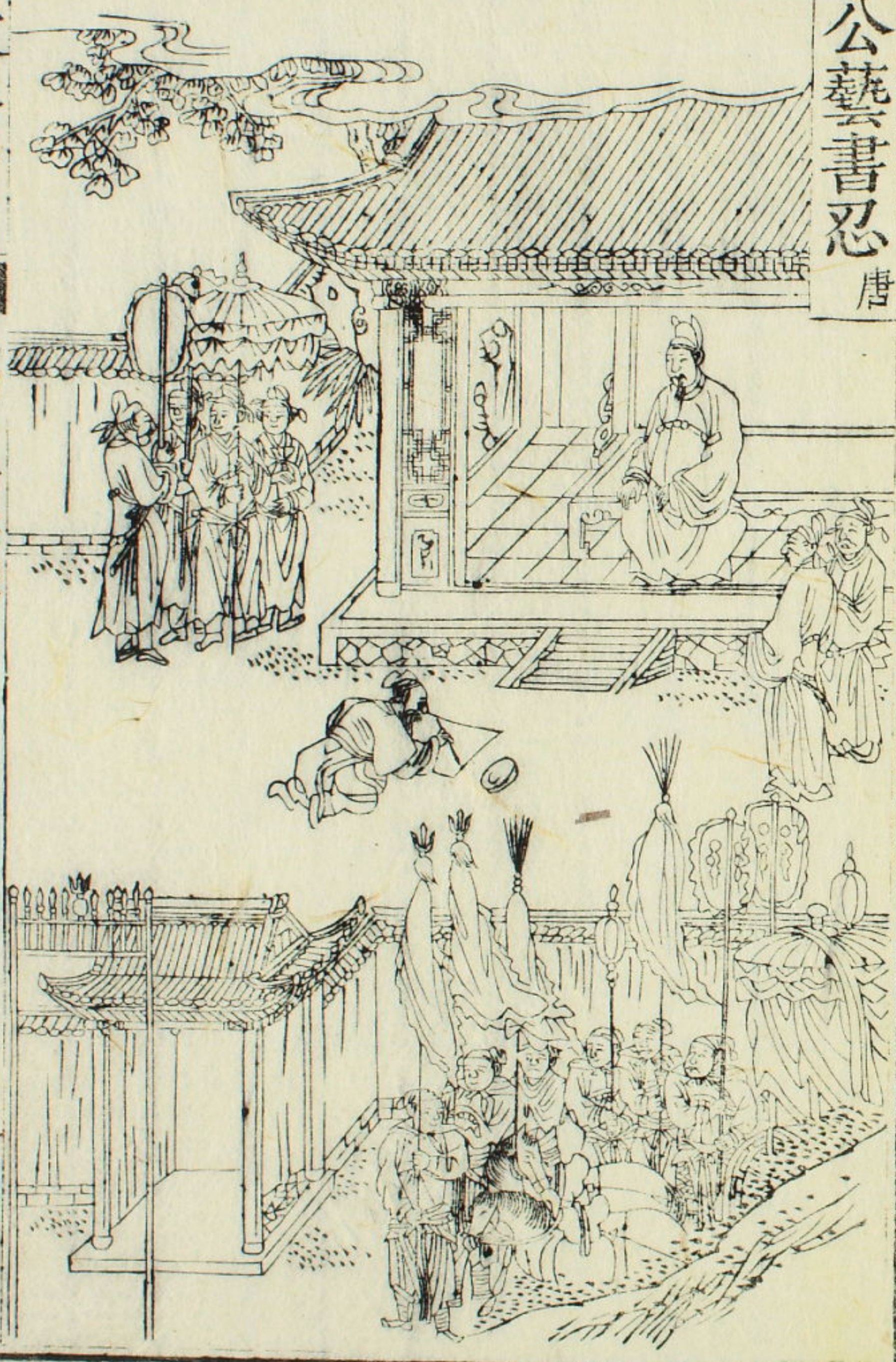
詩世同產業更同居四代相傳不少疎一婦邪謀寧間我終教兄弟復如初 斗粟其誰敢自私要同門內給寒飢滔滔好貨私妻子視此如何不忸怩

뉴군냥은당나라요양사람이니스덕률훈집의사라촌수먼형테도동싱긔티ㅎ여집안의훈말곡식과훈자비단이라도스스로이ㅎ는배업더니훈년을만나니군냥의안히군냥을권ㅎ여셔로사라디라ㅎ고이에만이쓸에섯는나모우희가마귀삿기를밧고아두어ㅎ여곰서로빠화을게ㅎ니집사람이피이히너기거늘군냥의체글오디턴히어즈러오매새증싱도서로용납디못ㅎ거든ㅎ믈며사람이야닐러무엇ㅎ리오훈대군냥이즉시형테와셔로사더니훈들남즉ㅎ

여군냥이 그 처의 계교에 속은 줄 알고 처를 내티
며 곧 오던 네 엿다 내 집을 그릇 되게 하느뇨 하고
형테를 불러 눈물을 흘리며 전후스연을 다 낼으
고 다시 훈가지로 이시니 후에 나라히크 집을 정
문하니라

公藝書忍

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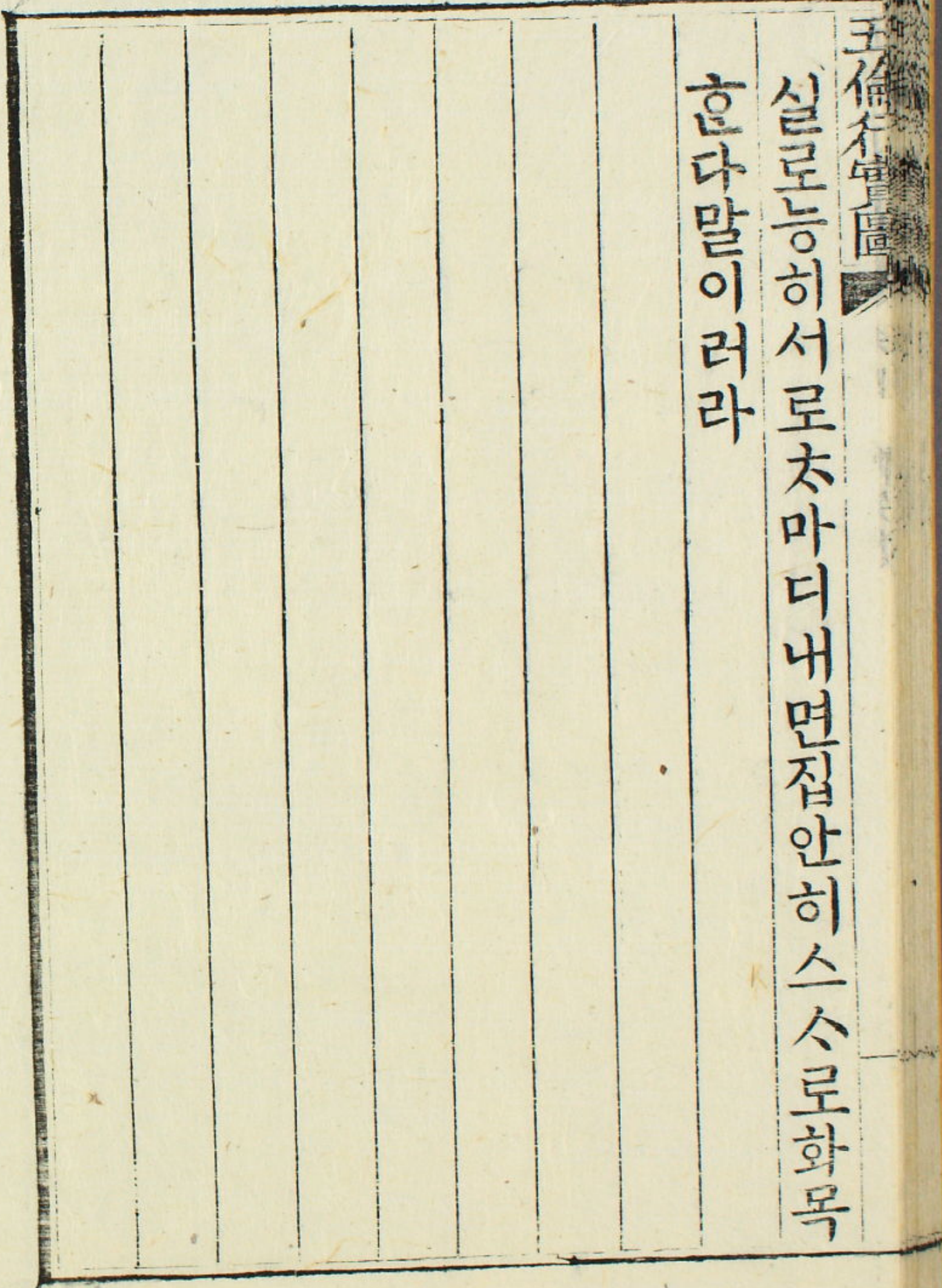


張公藝壽張人九世同居北齊隋唐皆旌表其門高宗封泰山幸其宅召見公藝問其所以能睦族之道公藝請紙筆以對乃書忍字百餘以進其意以為宗族所以不協由尊長衣食或有不均卑幼禮節或有不備更相責望遂為乖爭苟能相與忍之則家道雍睦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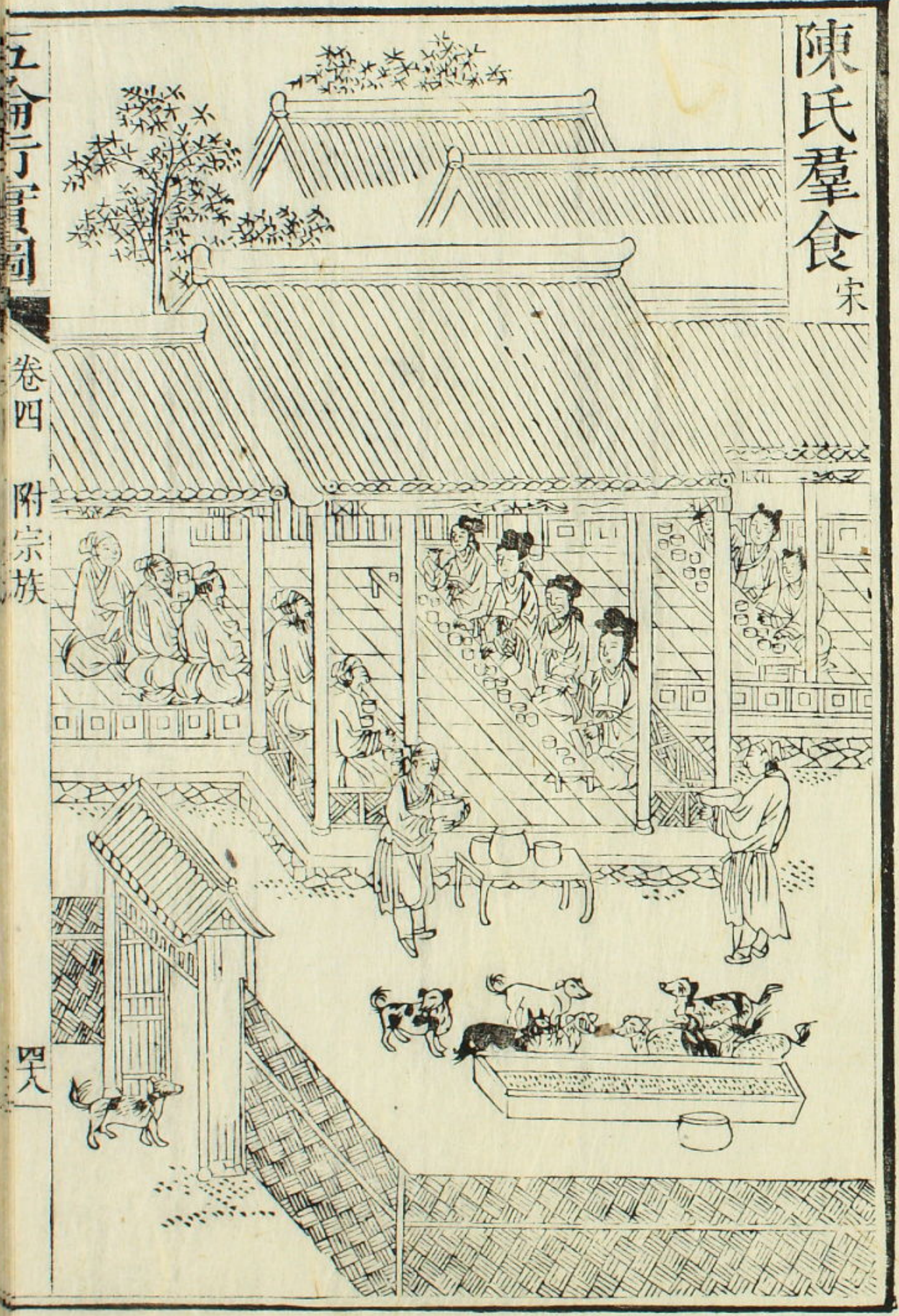
詩世人分割不同廬獨有張公九世居帝問由來能睦道但將忍字百來書 禮嚴卑幼缺應頻尊長衣飧或未均忍不出言相責望怡怡家道自相親

당공예는 당나라 슈장사 례이니 조상부터 구덕
를 훈가지로 사니 그 후 여러 나라 흘디 내되 다 그
집을 정표하엿더니 당나라 고종 황제 태산에 봉
선 님군의 공덕을 사 거 명
산에 감 초는 일이라 하시고 오시다가 그 집에 남하
샤 공예를 불러 무르시되 무슴도 리로 능히 이러
르시 종족을 화목하게 하느다 공예도 희와 부슬
청하여 태물인 밝일 빛을 베타드리니 대개 그 뜻은
종족이 불화하미 미양어 룬이 의식을 후고 로더
아니 게 하고 느즈니 와 어 린이 네 절을 부 족 하하
면 인하 여 서로 칙망하 여 드 토며 틈이 나느니 진

실로능히서로차마디내면집안히스스화로화목
흐다말이러라



陳氏羣食 宋



陳兢居江州十三世同居長幼七百口不畜僕妾上下嫻睦人無間言每食必羣坐廣堂未成人者別爲一席有犬百餘亦置一槽共食一犬不至羣犬皆不食

詩七百餘人未忍分高曾叔姪暨仍雲十三嗣世同炊爨每食長筵列作羣 敦睦家風世所崇誥誥長幼一堂中欲知感化冥冥理看取槽中百犬同

진공은송나라사람이니강주사히사라삼삼디를훈가지로이셔집안사람이칠백귀라복첩을

두디아니하고상해화목하여스이에다른말이
업고미양밥먹을적이면너른집의모히여안쇼
어린아히들은사로훈자리에안티고기르느개
빅여무리이셔또훈구유에먹이니훈개못밧츠
면모든개먹디아니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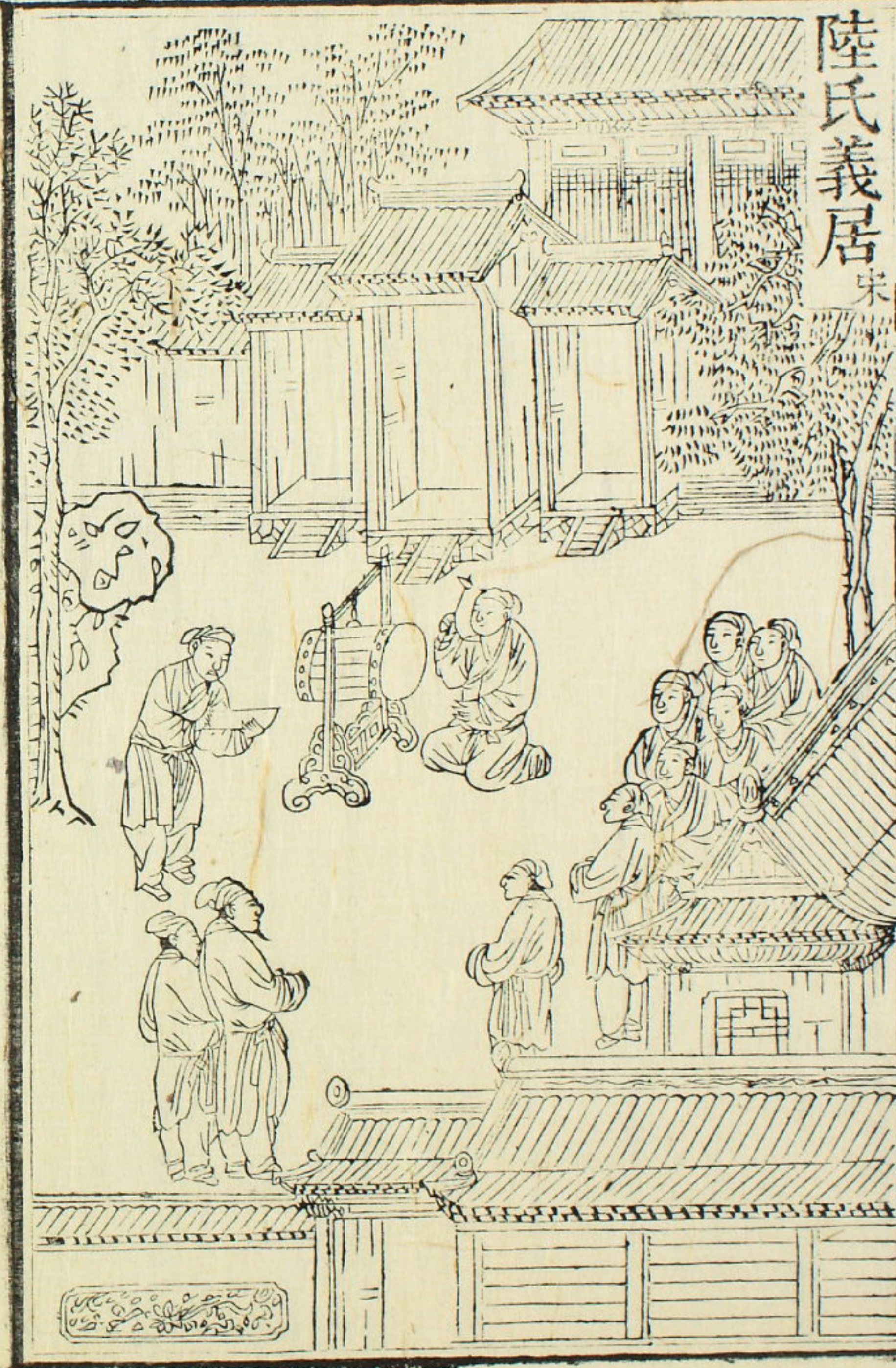
范仲淹吳縣人輕財好施尤厚於族人既貴於姑蘇
 近郭買良田數千畝為義莊以養羣從之貧者擇族
 人長而賢者一人主出納人日食米一升歲衣縑一
 匹嫁娶喪葬皆有贍給自政府出歸姑蘇焚黃搜外
 庫惟有絹三千匹令掌吏錄親戚及閭里知舊自大
 及小散之皆盡曰宗族鄉黨見我生長幼學壯仕為
 我助喜我何以報之哉

詩千畝良田豈自圖盡施宗族遍親疎匹衣升食
 無他費婚葬相扶亦有餘 庫中搜得三千絹一
 日親知盡散之聊報鄉閭助吾喜相公會不念家

私

범등업은송나라오현사람이니 저를을가비야
이너지고님주기를도화하며더옥종족의게후
히히여벼솔이이의놈흐매집곳가온곳에도흔
밧수천묘를사두어의장^{의잇는전}을삼아여러가
난흔겨레를치고겨레등에나만코어던사람을
나흔글히여저를을맛디고미인의게날마다
흔되와히마다김흔필식주고흔인과상스를다
초와주고정승벼솔로소분하려고향에도라
와밧고에남은김삼천필을다내어맛든사람으

로히여곰친척과고구를다기록히여크니와적
으니를일시에후터주며골오디종족과향니사
름이내어려셔브터자라나벼솔을볼보고날을
위히여깃부를도와주니내엇디벼갑흐리오
더라



陸九韶金溪人其家累世義居一人最長者為家長
 一家之事聽命焉歲選子弟分任家事凡田疇租稅
 出納庖爨賓客之事各有主者九韶以訓戒之辭為
 韻語晨興家長率眾子弟謁先祠畢擊鼓誦其辭使
 列聽之子弟有過家長會眾子弟責以訓之不改則
 撻之終不改度不可容則言之官府屏之遠方焉
 詩割戶分門薄俗然義居陸氏事堪傳區分職任
 由家長出納承迎禮罔愆 韻語丁寧是訓辭晨
 興擊鼓謁先祠固知有教元無類誰敢將身蹈匪

彝

육구쇼는송나라금제사람이니누더를흔가지
로사라그등나만흔사람은나흔흔히여가당을
삼아온집일을다취품은고히마다스데를흔히
여가스를눈화맛져므릇농스와지름출납과음
식흥기와손디점은일을다각각맛든재잇고
구외쇼경계는말로글을지어새베닐어나면
가당이모든스데를거너러스당의현알은물
츠매복을올리며경계는글을외와스데로
여곰버러서듯게고스데등에허물이이시면
여러스데를모화숙디저마르티고고치디아니

흔면달초고쇼종시고치디아니여용납
디못흔리면관가에고여먼사흐로쇼츠브리
더라

文嗣十世

元



鄭文嗣婺州人其家十世同居凡二百四十餘年一
 錢尺帛不敢私文嗣沒從弟大和繼主家事益嚴而
 有恩家中凜如公府子弟稍有過頒白者猶鞭之每
 歲時大和坐堂上羣從子皆盛衣冠鴈行立左序下
 以次進拜跪奉觴上壽畢皆肅容拱手自右趨出見
 者嗟慕余闕為書東浙第一家以褒之大和方正不
 奉浮屠老子教冠婚喪葬必稽朱子家禮而行子孫
 從化皆孝謹諸婦惟事女工不使預家政家畜兩馬
 一出則一為之不食人以為孝義所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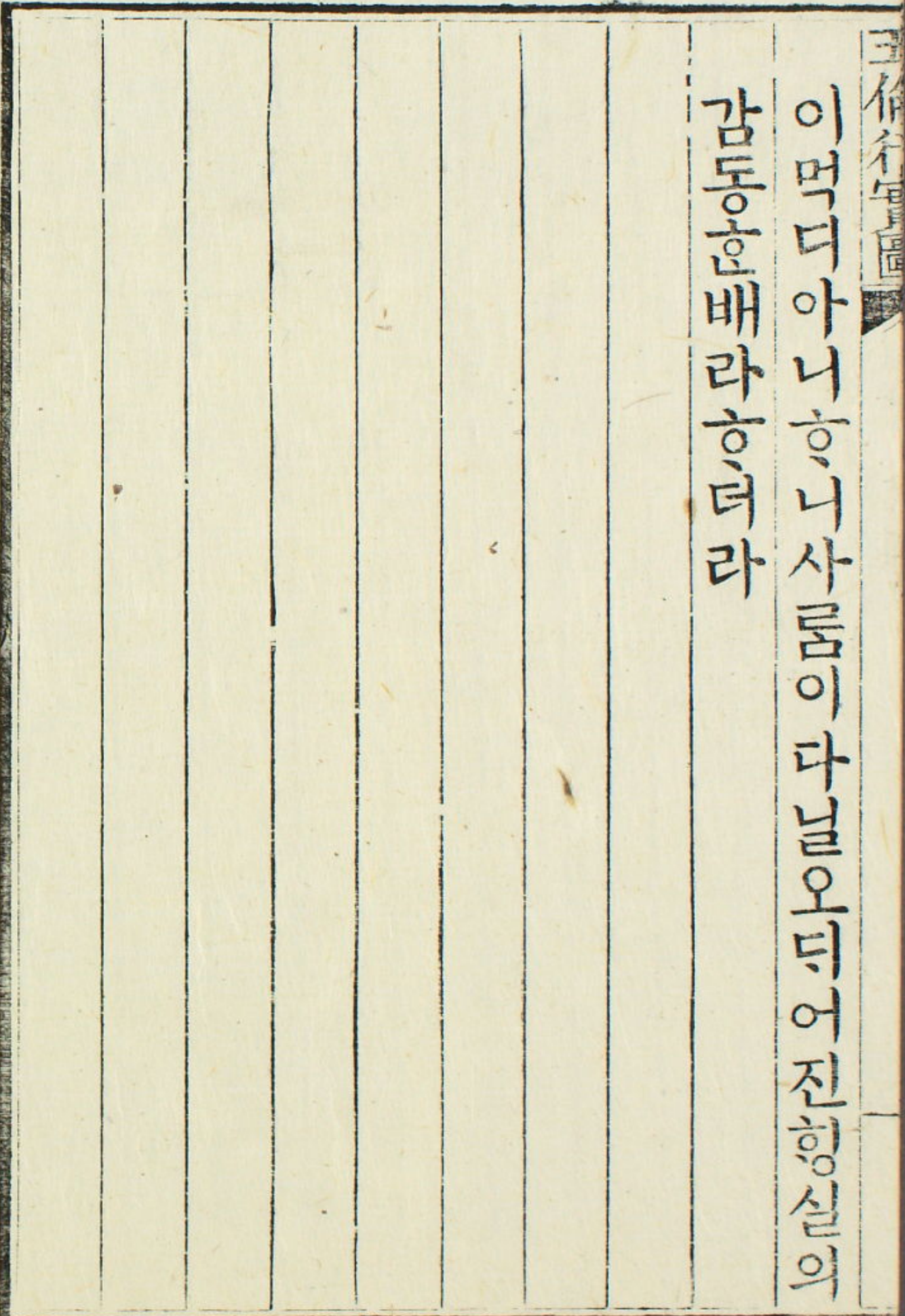
詩怡怡肅肅政連縣十世同居二百年伏臘壽觴

遵禮教傍觀嘖嘖嗟羣賢 家法嚴恩冠浙東不
遵釋老尙儒風諸孫孝謹皆從化畜物雖微亦感
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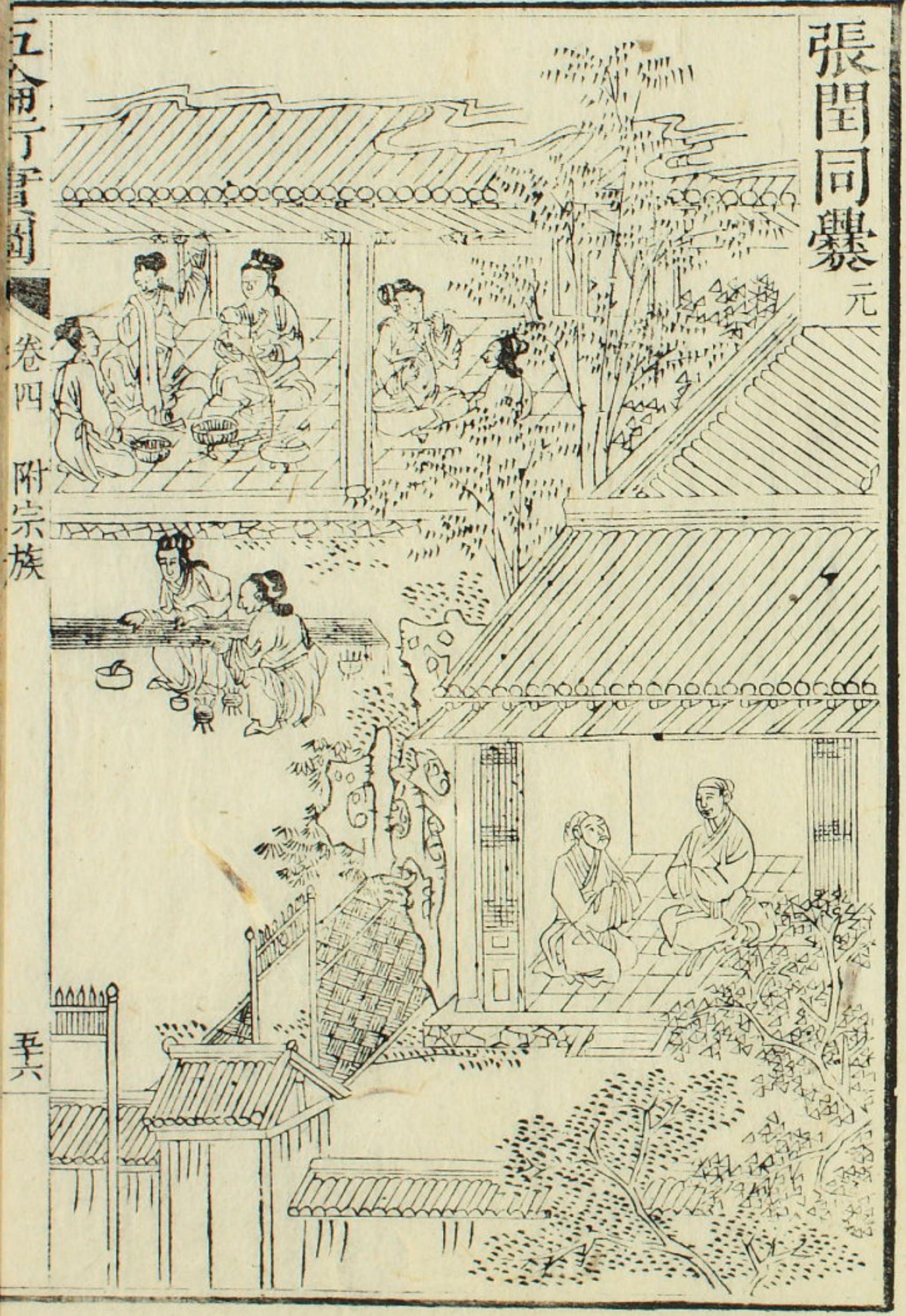
뎡문스노원나라무쥬사름이니십디를훈가지
로사라이빅스십여년이된디라도고만지물도
스스로이아니헝터니문시죽으매스춘야으대
해니어가스를맛다더옥엄호디은혜이시너집
안히엄숙헝기관가마더여즈테적이죄패이시
면반빅훈사름이라도오히려매로티고셰시면
대해당우희안쇼모든즈테는다의관을성히헝

여기러기항닐노슬좌편의버러섯다가츠레로
나아와절헝고살어잔을밧드러슈를올리고얼
골을마다듬고손을쇼자우편으로추창헝여나
갈시보는사름이다차탄헝고흙모헝니여겉이
동절데일가 동절야데 일집이라 다스즈를크게써주어포양
헝터라대해위인이뎡대헝니외도를승샹티아
니헝여훈인과상스를반드시쥬즈가레를조츠
니즈손이다화헝여효도롭고공근헝며여러부
인들은다만녀공을일삼고가스에간섭디못헝
게헝터라집의물들히이셔헝들이나가면헝물

이 먹디 아니 하니 사름이 다 날 오 디어 진 흥 실 의
감 동 한 배 라 흥 터 라



張閏同爨 元



五倫行實圖

卷四 附宗族

五十六

五倫行實圖
張閏延長人八世不異爨家人百餘口無間言日使
諸女諸婦各聚一室爲女紅工畢斂貯一庫室無私
藏幼兒啼泣諸母見者卽抱哺一婦歸寧畱其子衆
婦共乳不問孰爲己兒兒亦不知孰爲己母也兄顯
卒卽以家事付姪聚聚辭曰叔父行也叔宜主之閏
曰姪宗子也姪宜主之相讓旣久卒以付聚至元間
旌表其門

詩八世同炊不析居女工勤聚不私儲兒啼見者
爭相乳不問阿孃大小姐 已矣兄亡可得追盡
將家事付宗兒一門叔姪相推讓高義堪爲後世

師

양윤은원나라연장사람이니여덟덕을훈득이
시며집사람이빅여귀로되스이말이업고날마
다여러부녀로하여곰훈집에모히여질삼하다
가일이므치면훈고에너하스스로이감초미업
고어린아히울면여러지어미보느대로안아젖
먹이고훈지어미친뎡에둔나라갈제그주식을
두고가면모든지어미훈가지로젖먹여누아히
물뭇디아니하니그아히노훈누가제어민줄모
로더라윤의형이죽으매윤이즉시가스로서죽

하취의게맛디니취소양호여곧오디아자비는
아비항닐이라아자비맛당이맛드리이다운이
곧오디너는종지라네맛당이맛드리라고서
로스양호다가므침내족하의게맛디니후에그
집을정문호니라

五倫行實圖卷第四

